

연구
19총서

Guide

Writing

College Student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한국신문협회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발행일 / 2010년 3월 15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NIE 한국위원회(구정화 · 권영부 · 최상희 · 허병두 위원 대표집필)

발행인 / 장대환

펴낸곳 / 한국신문협회

주소 / 100-750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3층

전화 / (02) 733-2251~2

팩스 / (02) 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디자인 · 편집 · 제작 / 에이스디자인

전화 / (02) 2277-3241

팩스 / (02) 2277-2527

후원 / 전주페이퍼 

〈비매품〉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Guide

Writing

College Student

한국신문협회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

이 책은 신문에 나온 다양한 글 형식에 따라 대학생들이 글 쓰는 방법을 쉽게 익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쓰는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는 책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이 책에 대해 그런 안내서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글 자체를 잘 쓰거나 좋은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좋은 글을 표본으로 하여 글 쓰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에서 좋은 글의 표본으로 삼은 것은 신문에 게재된 글들입니다. 이 책은 신문의 좋은 글을 소개하고, 글의 구조를 분석하며, 그에 따라 신문에 나온 글처럼 쓰는 연습을 통해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일상에서 다양한 글을 생산하는 것이 쉽고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신문처럼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신문의 글은 오롯이 대중이 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신문에는 매우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에 대한 보도,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 제시, 시와 같은 문학, 문화 현상에 대한 비평 등 여러 유형 중 여덟 가지 유형의 글을 선택하여 글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작문이나 글쓰기를 위한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교수별로 좋은 글쓰기 교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강의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적합한 교재라고 인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책을 강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신문 속의 다양한 글 유형을 고려하여 해당 유형의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과 기존의 신문 글 중 좋은 사례를 제시하여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해당 유형의 글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안내 팁과 자료뿐 아니라 직접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노트 형식의 공간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적은 분량이지만 강의자나 학습자 모두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글의 유형과 그에 적합한 글쓰기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제시된 여덟 가지 글의 유형을 모두 다뤄도 되고 몇 개의 유형만 골라서 수업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각 장별로 독립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활용할 때 모든 내용을 다루거나 일부분만 다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책에 제시된 신문의 다양한 글쓰기 형식을 통해 대학생들이 좋은 글쓰기 방식을 익히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에 제시된 신문 기사 외에도 최근 신문 기사를 소재로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신문의 글을 접하고 더 많은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한국신문협회

01

보도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01

보도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신문 보도기사를 활용한 글쓰기를 익힐 것이다. 보도기사는 글쓴이(기자)의 주관이 배제되고 사실 위주로 작성돼 객관성을 지니는 글이다. 이 기사는 흔히 신문의 '스트레이트(Straight) 기사'를 말하며 기사의 기본이다. 적은 분량과 간결한 문장으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전한다는 것이 보도기사의 특징이다.

이 같은 보도기사를 분석하고 익힘으로써 글쓰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이 장의 목표는 보도기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글의 기본을 익히는 것이다.

▶ 학습 목표

- 보도기사의 특성과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
- 간략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보도기사를 직접 써봄으로써 올바른 의사 전달법 및 표현법을 익힌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도기사를 읽고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보도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이나 견해를 짧은 글로 쓸 수 있다.				

2) 보도기사의 특징

신문은 독자들에게 지면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뉴스를 전달한다. 신문 기사는 보도를 전제로 한 글이다. 기사는 정확(Correct), 간결(Concise), 명백(Clear)하게 써야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신문 기사는 크게 보도기사, 해설기사, 의견기사로 나눈다. 보도기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 위주로 쓴 기사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말한다. 해설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다루는 내용의 배경, 원인을 설명·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글이다. 의견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나 주장을 담은 글로 사설, 칼럼, 비평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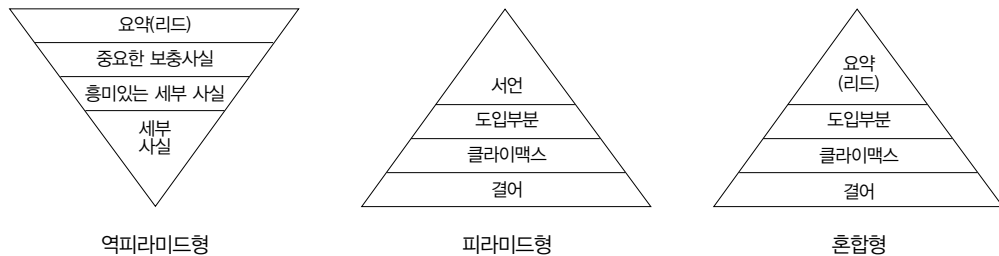
신문 기사는 제목, 리드, 본문으로 구성된다. 신문 기사는 또 구조에 따라 역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형태는 일반 글쓰기의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전개와 유사하다.

역피라미드형은 보도기사의 기본형이다. 미국 AP통신이 처음 개발하여 사용했다고

해서 'AP 기사형'이라고도 부른다. 역피라미드형 기사는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첫머리에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이어 본문에서 보충 사항과 세부 사항을 중요도 순서대로 배열해 나가는 구조를 말한다. 이 형태의 기사는 사건·사고를 전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장점은 리드만 읽고도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피라미드형은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돼 흔히 '시간적 서술형'이라고 한다. 즉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시간적·논리적 순서대로 서술하고 끝에서 결론을 내리는 형태다. 이런 형태는 일반 기사보다 사실이나 칼럼 따위의 의견기사, 피쳐(feature:읽을거리)기사에 많이 사용된다. 이 유형의 기사는 마감시간에 임박해 기사를 압축하고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줄거리를 전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다.

〈그림〉 신문기사 구조의 유형



혼합형은 역피라미드형과 피라미드형을 혼합한 형태다.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역피라미드형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제시하고, 다음의 본문에서는 피라미드형처럼 사건의 논리적·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한다.

보도기사의 전개 방법은 시간·공간에 따라 작성되는 열거형(병렬식), 특정 사안에 대한 논리를 단계별로 전달하는 3단법(서론-본론-결론), 4단법(기-승-전-결) 등이 있다.

보도기사의 구성 요소는 6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5W1H(육하원칙)이다. 보도기사에서는 5W1H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맨 앞에 제시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비중에 따라 적절히 배치된다.

주체 - Who - 누가
객체 - What - 무엇을
내용 - How - 어떻게
장소 - Where - 어디서
시간 - When - 언제
이유 - Why - 왜

보도기사는 육하원칙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기사를 간결하고 짧게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보도기사에서는 1~2개의 구성 요소를 빼는 경우가 많다. 기사 첫머리(리드)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을 제시하면 문장이 길어져 오히려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보도기사에서는 육하원칙 중 가장 중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요소 3개 안팎을 첫 문장에 밝히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음 문장이나 다음 문단에 제시한다.

3) 보도기사의 분석

(예시 1)

사설경마 엮인 기수 경주대신 ‘정보 장사’

업자에 숙소 내부용 영상 실시간 유출

경마 실황 영상과 정보를 사설 경마업자에게 팔아넘긴 경마기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8일 이모씨(31) 등 현직 기수 2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사이트로 경마 정보를 넘겨받아 유포한 조모씨(33)를 구속하고 사설 경마도박을 한 김모씨(5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기수들의 숙소 내부 TV에 제

시간으로 유출시켰다. 이들은 숙소 TV의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 컴퓨터 장비와 서버를 통해 정보를 빼냈다. 조씨는 이렇게 빼낸 정보를 팔아 8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기수 2명에겐 판매액의 20%가 돌아갔다.

경마 배당판 정보는 각 말의 인기도나 순위권 예상 정보가 담겨 있어 마권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자료다. 한국마사회는 배당판 정보를 이용한 사설경마가 극심해 지자 7월부터 배당판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내부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해왔다.

조씨가 유포한 배당판 정보는 입소문을 타고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설 경마업자 등 150여명이 정보를 샀고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무려 7억7000만원을 마권 구입에 탕진했다. 경찰은 “경마에 빠져 사업이 망하자 자살을 시도했다가 장애인인 된 사람이 다시 이 영상을 보며 사설 경마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경마 실황 정보를 사들인 사설 경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9년 11월 19일 12면



(예시 2)

아프리카 15國 외교장관 서울로

첫 장관급 협의체 구성

장 쾡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레이먼드 치반다 콩고민주공화국 외교부 장관 등 아프리카 15개국 외교장관이 아프리카 대표단 130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AU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한국-아프리카 포럼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장 쾡 위원장, 치반다 외교장관, 세울 메스린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 예브라힘 예브라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협력부 장관 등 15개국 아프리카 장관과 함께 공식 장관급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측 이니셔티브 계획을 설명하고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2006년 개최됐지만 아프리카연합 측과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화, 학술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은 아프리카의 친구라는 인식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아프리카 장관을 위해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만찬행사를 주재하는 한편 24일에는 외교부 장관 주최 만찬, 25일에는 산업시설 참관 등 행사가 이어진다.

한국은 장관급 회담에서 2008년 기준 1억달러 수준인 아프리카 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2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근우 기자

매일경제 2009년 11월 19일 5면

(예시 3)

세잎개발나물 강원도서 세계 최초 발견

500만년 전 분리된 것 추정 ... 신종 생물 49종 대거 확인

【강릉】약 500만년 전에 분리된 것으로 알려진 세잎개발나물이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되는 등 신종 생물 49종이 대거 발견됐다.

18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작된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결과 세계적으로 2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개발나물 가운데 유일하게 3장만 달린 '세잎개발나물'이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자원관이 미나리과 식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도우니 교수와 함께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 횟수를 분석한 결과, 새로 발견된 세잎개발나물은 가장 가까운 종인 일



본의 시음 레라와 약 500만년 전에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동물에 기생 또는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각류(橈脚類)에서도 신종 5종이 강릉과 순천 앞바다에서 발굴됐다.

정익기기자(jgjung@kwnews.co.kr)

강원일보 2009년 11월 19일 5면

▶ 예시문 분석

(예시 1)은 '현직 기수가 사설 경마업자에게 정보 장사를 하다 적발됐다'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다.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5장이다. 이 글은 4장 정도이며, 역피라미드형(두괄식)을 취하고 있다. 육하원칙 가운데 '누가' (현직 기수)와 '무엇을' (경마 정보 불법 유통)에 초점을 두었다.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와 둘째 문단에 핵심 사항이 기술되고, 다음 문단부터 이 사건에 대한 주요 사실과 보충적 세부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이 글의 내용 구조는 [리드-주요 사실-세부 사실]로 이뤄졌다.

(예시 2)는 '아프리카 15개국 외교장관 서울로 온다'는 기사다. 이 글은 200자 원고지 3.5장 정도이며, 구조는 역피라미드형(두괄식)이다. 초점은 육하원칙 가운데 '누가' (아프리카 15개국 외교장관)와 '어디서' (서울)에 두었다.

이 글도 첫째와 둘째 문단에 핵심 사항이 제시되고, 다음 문단부터는 '한국·아프리카 포럼'과 주요 계획이 설명되고 있다. 이 글의 내용 구조는 [리드-세부 사실-보충 사실]로 이뤄졌다.

(예시 3)은 '신종 자생 생물인 세잎개발나물이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200자 원고지 2.5장 정도이며, 역피라미드형(두괄식)이다. 육하원칙 가운데 '어디서' (강원도)와 '무엇을' (신종 자생 생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글 역시 첫째와 둘째 문단에 핵심 사항이 나오고, 다음 문단부터 자생 생물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고 있다. 이 글의 내용 구조는 [리드-세부 사실-보충 사실]로 이뤄졌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전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사실 전달 이외에 글쓴이(기자)의 주장이나 의견 등은 밝히지 않는다.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독자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구조는 역피라미드형이다. 보통 의견기사·르포기사 등은 피라미드형이고 해설기사·통계기사·평론 등은 혼합형이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모든 기사의 기초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교재로 삼아 글쓰기 훈련을 하면 글쓰기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4) 보도기사를 활용한 기본형 글쓰기

ㄱ.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형 글쓰기를 한 후 각자 보도기사를 찾아 글쓰기를 해보자.

문산~서울역 43분, 특급열차 12월 1일부터 운행

국도해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43분에 달하는 경의선 특급열차를 평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한 차례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급열차는 토·일·공휴일을 뺀 매일 오전 7시 50분 문산을 출발, 8개역(문산·금촌·일산·백마·대곡·행신·DMC·서울역)에 정차한다. 국토부는 특급열차 운행으로 일반

열차(20개역 정차) 대비 16분, 기존 급행열차(11개역 정차) 대비 5분가량 출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백승근 철도운영과장은 "경의선 특급열차를 시작으로 다른 노선에서도 특급열차 도입을 검토해 철도 이용객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조선일보 2009년 11월 24일 31면

↳ 보도기사의 제목 및 출처

↳ 글의 분석

① 주체는 누구인가?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

⑤ 왜 그랬을까?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⑨ 문단별 요점을 짧게 정리하면? (문단은 3~7개로 나눈다.)

.....

.....

⑩ 주제(핵심)를 짧게 쓰면? (두괄식으로 100자 안팎)

● 내가 찾은 보도기사를 분석한 후 기본형 글쓰기

↳ 내가 찾은 보도기사의 제목 및 출처

↳ 글의 분석

① 주체는 누구인가?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⑤ 왜 그랬을까?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⑨ 문단별 요점을 짧게 정리하면?

⑩ 주제(핵심)를 짧게 정리하면?

5) 보도기사를 활용한 심화형 글쓰기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각자 보도기사를 찾아 글쓰기를 해보자.

새마을·무궁화호 모든 열차 석면 검사

코레일, 검출된 차량 단열제도 즉시 교체하기로

지하철 역사에 이어 운행 중인 객차가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16일 “새마을·무궁화호 일부 열차에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 열차 1457량에 대한 석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 10일 코레일

에 “1986~87년에 제작된 열차 히터의 단열제에서 5~87%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노조는 이달 초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30량을 표본조사했다.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지적에 따라 90년 이전에 제작된 열차 148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차량의 히터에 석면이 포함된

보온·단열재를 쓴 사실을 확인했다.

코레일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박승언 일 반차량팀장은 “보온·단열재는 소모품이라 2년마다 교체한다”며 “90년 이후 제작된 1309량에도 보수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와 별도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148량의 단열재를 유리섬유와 같은 대체재로 즉시

교체할 방침이다.

열차에 석면 자재가 들어간 곳은 세 곳이다. ▶열차 내 좌석 옆 히터(단열제) ▶화장실이나 세면실의 급수관(보온용 석면테이프) ▶객차의 제동장치함(결빙 예방용 석면포)이다.

코레일 강병수 기술본부장은 “석면자재가 사용된 곳 가운데 두 곳은 승객과 관계 없는 열차 외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이 접촉할 수 있는 히터 안에 들어 있는 석면도 스테인리스 덮개에 덮여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gang.co.kr

중앙일보 2009년 11월 17일 16면

보도기사의 제목 및 출처

글의 분석

① 주제는 누구인가?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⑤ 왜 그랬을까?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⑨ 문단별 요점과 주제(핵심)를 짧게 정리하면? (문단은 3~7개로 나눈다.)

문단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주제(핵심)

[illegible]

● 내가 찾은 보도기사를 분석한 후 심화형 글쓰기

↳ 내가 찾은 보도기사의 제목 및 출처

↳ 글의 분석

① 주체는 누구인가?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⑤ 왜 그랬을까?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⑨ 문단별 요점과 주제(핵심)를 짧게 정리하면?

문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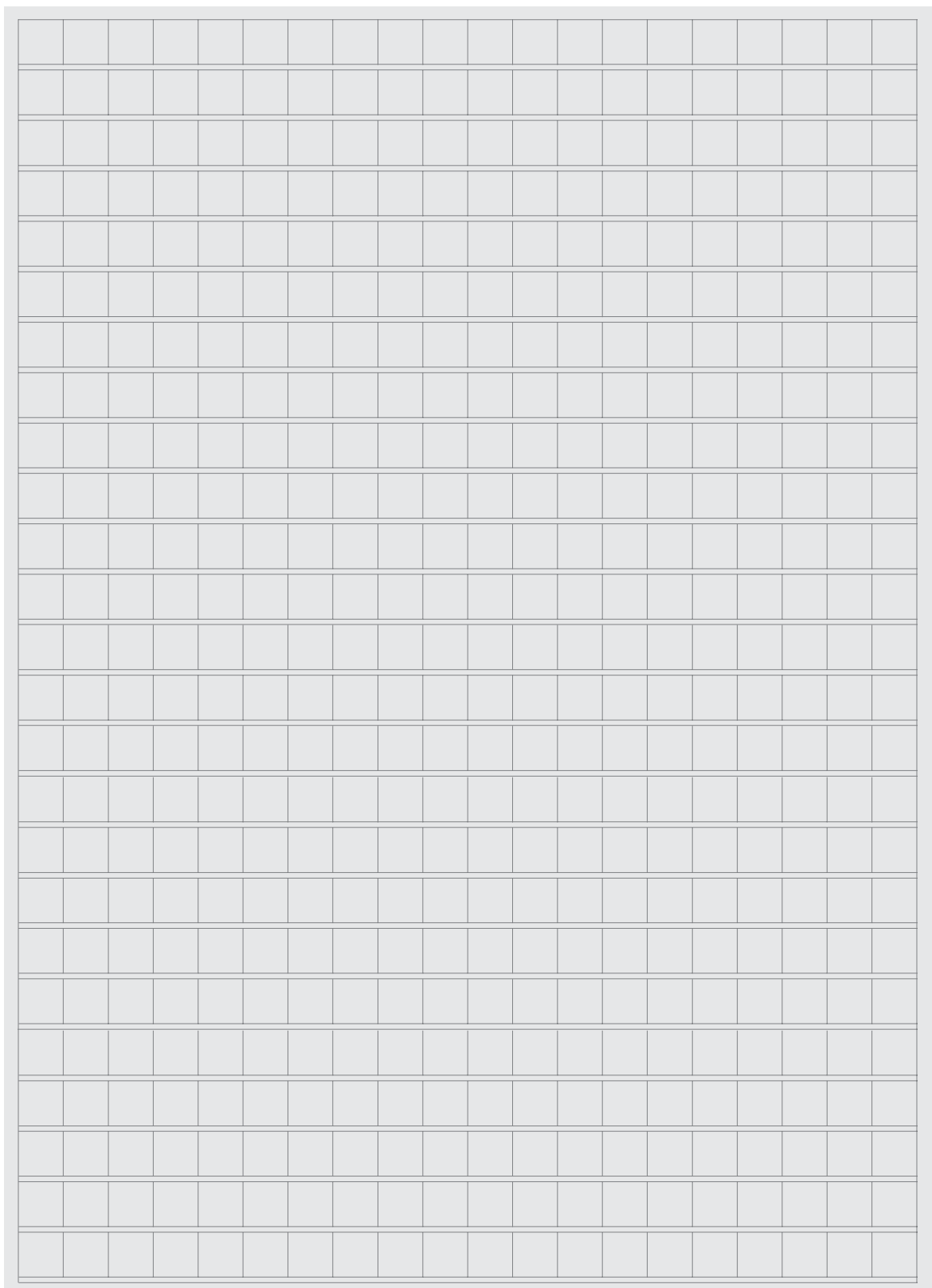
문단 2

문단 3

문단 4

주제(핵심)

⑩ 선택한 보도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보기



02

사설을
활용한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사설 이해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의 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식을 익힐 것이다.

사설(社說)이란 신문사의 으뜸 되는 주장으로, 국내·외의 시사 쟁점에 관해 한 신문사의 책임 아래 내놓는 글을 말한다. 즉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사안 중 큰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신문사의 입장과 시각을 밝히는 글이 사설이다. 결국 사설은 독자들이 자사의 논리를 따르도록 구성하는데, 그러다보니 논증적이고 설득적인 글이 주류를 이룬다.

사설들을 살펴보면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내용의 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성향이 다른 사설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반복하면 주어진 글과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나누어 따지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 학습 목표

- 사설은 어떻게 구성된 글인지를 이해한다.
- 사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한다.
- 사설 비교를 통해 신문사별 주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자신의 생각을 논증 구조에 따라 '주장-반론-재반론' 형식으로 펼치는 방법을 이해한다.
- 사설 비교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키운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사설을 읽고 사회적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사설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할 수 있다.				

2) 사설의 이해

사설은 주요 쟁점에 대한 신문사의 주장을 펼치는 글로, 일반적으로 신문사별로 시각이 다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둘러싼 두 신문사 사설의 결론 부분을 통해 동일한 이슈를 바라보는 신문사 간 입장차를 알아보자.

(상략)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국민 세금으로 이 사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국민 세금을 8억원이나 지원했었다. 아까운 국민 세금이 또 한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데 쓰인 꼴이다.

조선일보 2009년 11월 9일 35면

(상략)

친일 문제는 근대 이후 우리 역사에서 자라난 종양과 같다. 따라서 친일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은 이번 일로 마무리될 수도 없고 마무리돼서도 안 된다. 이번 사전 발간이 친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계기가 돼야 할 까닭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도 이달 말로 끝난다.

한겨레 2009년 11월 9일 27면

조선일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한겨레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계기로 친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이슈를 두고 다른 시각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에서 다룬 이슈에 대한 보도에도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10면에서 '친일인명사전 4389명 수록… 'жат대'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직위와 일부 행위를 들어 친일로 일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같은 날 1면 기사로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일제 강점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이 사전은 2001년 12월 편찬사업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주요 이슈는 기사와 사설에 연동돼 다뤄진다. 기사가 주요 이슈를 '사실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사설은 사실에 대한 '의견 중심'의 기록인 셈이다.

신문의 얼굴이 1면이라면 사설은 신문의 심장이다. 그렇지만 의외로 읽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설을 일러 신문의 맹장(盲腸)이라고 했다. 특별한 기능도 없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논설위원은 신문의 논조를 좌우하는 얼굴 없는 기자라고도 불린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겠지만, 이들이 언제나 무기명 사설만 쓰는 것은 아니다. 필력을 인정받은 논설위원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내건 칼럼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신문마다 개성이 있고 신문사의 창간이념인 사시(社是)가 다르긴 하지만 사설이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 받지 않고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뒤 좌우 눈치 보지 않고 옳고 그름에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의 영향으로 '사설' 하면 옳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는 오랜 세월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독재정권의 칼날에 맞서 싸워온 우리 신문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사실을 활용한 기본형 글쓰기

논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읽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의 성격을 이해하면 받아들이 수 있는 말이 다. 사실은 한 신문사의 의견이기에 주장이 강한 글이다. 그렇다고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당한 논거도 제시한다. 사실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이라는 말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 성립한다. 사실이 지나치게 주장 중심이면 독자들의 비판을 면치 못한다. 비판받는 사실을 살펴보면 이슈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과 마찬가지로 논술도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글쓰기다. 주장과 근거라는 논증을 무기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논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사실과 논술에는 서로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사실 읽기를 반복하면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논증적 글쓰기도 한결 쉬워진다.

사실을 통해 논증 구조와 논증적 글쓰기를 익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사실을 통해 논증 구조를 익히는 방법

방법 1	사실을 읽고 주장과 근거 형식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활동
방법 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과 근거 형식으로 써보는 활동

‘방법 1’은 사실을 읽고 그 속에 담긴 주장과 근거를 찾아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장을 펼칠 때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 ‘시민들의 달라진 소속감과 정주의식’이라는 주제의 사실 속에 있는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자.

(상략)

(1)애항심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위한 금전적 기부 의지에서 63%가, 자원봉사의지에서 38.4%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2)공유의 참여의지가 대체로 낮은데다 이기적 성향이 강한 이 같은 결과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경상일보 2009년 12월 18일 19면

이 글은 사실의 결론 부분이다. (1)은 근거이고 (2)는 주장 부분이다. 이렇게 사실을 읽고 핵심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면 자연스레 논증 구조를 익힐 수 있다.

한편 사실을 읽고 논증 구조로 요약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실을 논증 구조로 요약하는 단계별 활동이 필요하다.

● 사설을 논증 구조로 요약하는 단계별 활동

1단계	2단계	3단계
제시문 속의 주장과 근거 모두 찾아보기	중심이 되는 주장과 근거 찾아 한 차례 간추리기	중심 주장과 근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1단계’는 제시된 글 전체를 읽고 문단을 중심으로 그 속에 있는 주장과 근거를 모두 찾는 단계다. ‘2단계’는 문단별 주장과 근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간추리는 단계이고, ‘3단계’는 간추린 핵심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문장화하는 단계이다.

이 활동지 모두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핵심 주장과 근거를 찾을 수도 있고, 역량에 따라 2단계 활동지에서 바로 3단계 활동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 논증 구조로 요약하는 1단계 활동지

주장	근거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⑥

● 논증 구조로 요약하는 2단계 활동지

주장	근거
①	①
②	②
③	③

● 논증 구조로 요약하는 3단계 활동지

주장과 근거 형식으로 최종 요약	
-------------------------	--

요약하는 방법을 익히는 이유는 사실이 전하려는 핵심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래야만 사실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신문사의 사실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읽기를 통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끄는 구성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논리적인 글쓰기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읽기가 필요하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되풀이하여 읽게 되면 제시문의 이해분석력이 커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쉬워진다.

‘방법 2’는 자신의 생각을 논증 구조에 따라 글로 써보는 것이다. 주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도 좋고, 개인의 관심사도 좋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논증적으로 펼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보자.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 예시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논증적 글쓰기 예시
1단계	논제 해결에 알맞은 논증 형식을 그린다.	주 장 : 한글날 문화국경일 지정, 한글 파괴 소외현상 심각 반 론 : 국경일 지정 반대, 국가적 생산성 하락
	논증 형식에 주요 개요를 메모형식으로 적는다.	재반론 : 국경일 지정, 한글 가치 재인식 계기 마련
2단계	메모한 개요를 문장화한다.	주 장 :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 근 거 : 인터넷의 한글 파괴 현상, 일상 속에서 많이 쓰이는 외국어, 외국어로 된 간판과 상표명이 많아 한글의 소외 현상이 심하다.
	문장화한 것이 좋은 논증의 조건에 맞는지 따져본다.	반 론 : 국경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근 거 : 하루를 쉬게 되면 국가적 생산성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경일이 되면 공휴일이 되어 하루를 그냥 노는 날로 인식하기 쉽다.
		재반론 : 국경일로 지정하여 한글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근 거 : 최근 찌아찌아 부족의 한글 채택, 세계적으로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증가하는 등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3단계	좋은 논증의 조건에 맞으면 글쓰기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한글 파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상표명이나 거리의 간판들은 외국어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 고유 문자가 지니는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여 우리글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완성된 글을 퇴고하여 마무리한다.	물론 공휴일로 되면 그저 하루 쉬는 날쯤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국가적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찌아찌아족이 자신의 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한글을 채택했고, 세계적으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한글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사례다. 그런데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등한시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예시는 논증적 글쓰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개요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만 군더더기가 없는 매끄럽고 논리적인 글이 된다. 동시에 논증적 글쓰기를 할 때는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대는 활동으로 그치지 말고,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따른 재반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사형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장, 반론, 재반론 구조로 간략하게 논술해 보자.

● 사형제 찬반 논란에 관한 입장을 논술하기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논증적 글쓰기
1단계	논제 해결에 알맞은 논증 형식을 그린다.	
	논증 형식에 주요 개요를 메모 형식으로 적는다.	
2단계	메모한 개요를 문장화 한다.	
	문장화한 것이 좋은 논증의 조건에 맞는지 따져본다.	
3단계	좋은 논증의 조건에 맞으면 글쓰기를 한다.	
	완성된 글을 퇴고하여 마무리한다.	

4) 사설을 활용한 심화형 글쓰기

한 신문사의 사설만 읽게 되면 그 신문사의 논리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기나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설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다. 즉 하나의 쟁점을 두고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설을 비교하여 읽는 것이다. 사설 비교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활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설 비교로 논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단계별 활동

단계	단계별 활동의 핵심	주요 활동 내용
1단계	한 편의 사설을 선정하여 관련 기사 찾아 읽기	한 편의 사설을 읽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활동
2단계	한 편의 사설을 읽고 주장과 근거 부분을 찾아 핵심 내용을 요약하기	사설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
3단계	성향이 비슷한 사설 상호 비교하여 읽기	보수성향의 사설은 보수성향끼리, 진보성향의 사설은 진보성향끼리 비교하며 읽는 활동
4단계	성향이 다른 사설을 서로 비교하는 글쓰기	주제 정하기 두 사설의 중심 내용 요약하기 두 사설의 공통점 찾기 두 사설의 차이점 찾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 펼치기
5단계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설 쓰기 활동	자신이 신문사의 주필이 되었다는 가정 아래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보는 활동

사설을 비교하는 글쓰기는 4단계 활동이 핵심이다. 4단계 활동은 우선 같은 이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나타낸 두 편의 사설을 스크랩한 후 차근차근 정리하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두 편의 사설을 비교할 때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신문 사설을 한 편씩 골라야 한다. 한 쪽 성향의 신문 사설만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사설 비교 활동의 백미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다음의 사설 두 편을 읽고 주어진 활동지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해 보자.

‘수능 점수 공개’ 부작용 대비책 고민해야

대법원이 9개 구간의 등급점수(상대점수)만 공개했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수능의 원점수에 대해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판시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험생의 이름·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못박았다. 요컨대 원점수와 등급점수를 비교할 수만 있도록 공개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비록 2008학년도 수능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능 원점수 자료의 봉인이 처음으로 풀리게 됐을뿐더러 유사한 소송도 맞물려 있어 향후 교육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07년 12월에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성적이 등급점수로 환산된 데 따른 혼란이 이번 재판의 발단이었다. 평준화 반대 진영에서 수능성적 자료 공개요구가 간헐적으로 있던 터에, 수능 혼란을 계기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소송은 표면적으로 원점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었지만 내용은 사뭇 달랐다. 고

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평준화 유지 진영과 학교별·지역별 학력 격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평준화 해체 진영 간의 대결 구도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법원은 법리 공방에선 공개요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평준화 공방에선 중립을 지켰다. 공개·비공개 정보를 분리함으로써 수능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학교별·지역별 학력 격차는 드러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수능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의 수능 자료를 무책임하게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 의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수능 자료의 무분별한 공개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면 공개되는 게 마땅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공개에는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공개 정도와 활용에 따라 고교 등급제와 고교선택제, 교원평가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능 자료의 경우 교육적 가치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칫 수능 공개가 교육의 질적 향상은커녕 학력 격차와 학교 서열화만 부추기는 혼란이 없도록 교과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10년 2월 13일 23면

수능정보 공개, 공교육에 기여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 구분점수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 판결 자체에만 국한해 보면 2008년 수능 원점수 등에 한해 학부모단체의 공개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실제로 대학들이 전황에서 표준점수와 등급만 반영하고 있어 당장 현장에선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곧 있을 조전혁 의원의 유사 소송 판결과 맞물려 수능정보의 전면 공개와 이에 따른 정확한 고교 교육실태 확인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교육당국의 수능정보 비공개 취지를 심분 이해하면서 교육정보 비공개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현실의 문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의 은폐는 당장은 사회적·교육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교육개선 의지를 약화시키고 문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냉정한 현실 확인이다. 학력에 미치는 변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역별 학력격차가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비교열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정책능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면 해당 학교는 수업방식을 재검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능정보 공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학력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핵심은 대학들이 당장의 고교등급 반영 유혹을 떨쳐 버리는 일이다. 대학들은 교육여건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보 공개의 취지를 살리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도 합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의 은폐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원칙에서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0년 2월 13일 19면

● 성향이 다른 사설을 비교하는 글쓰기

주제 정하기	
두 사설의 중심 내용 요약하기	
두 사설의 공통점 찾기	
두 사설의 차이점 찾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 펼치기	

03

인터뷰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03

인터뷰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인터뷰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를 공부한다. 조금 과장하자면 인터뷰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눈맞춤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끝난다. 삶은 인터뷰의 연속인 셈이다.

이렇게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는 모든 활동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인터뷰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일회적 행위라기보다는 삶의 모든 상황과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 언어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인간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는 신문은 갖가지 인터뷰 기사들을 두루 담고 있다. 기사를 인터뷰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삶의 갈피 속에서 일구어진 인터뷰 기사들을 읽으면 인간과 세상을 다각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 삶과 세상을 읽고, 스스로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영역을 세상과 공유해 보자.

인터뷰는 대학 입시와 각종 취업 시험 등에서 면접 등의 형태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요즘에는 자신이 인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뷰라는 중요한 관문을 능숙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 기사로 글쓰기를 공부하며 넓게는 삶과 세상을 파악하고, 좁게는 눈앞의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

▶ 학습 목표

- 인터뷰 기사가 어떻게 구성된 글인지 파악한다.
- 인터뷰 기사의 다양한 종류와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 인터뷰 기사를 직접 알차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를 집중적으로 읽는다				
나는 인터뷰 대상을 설정하여 기사를 직접 쓸 수 있다.				

▶ 인터뷰, 이렇게 해보세요.

글을 쓴다는 것은 기존의 대상과 주제, 현상 등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발굴해 내는 행위다. 인터뷰 기사를 쓸 때에도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중시하여 어떻게 드러내고 강조할 것이냐를 잘 따져야 한다. 이를테면 모든 기자들이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주목할 때, 선발전에서 늘 떨어지는 선수를 찾아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영광을 보면서 언젠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숨은 실패를 감수하며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가슴을 울리게 할 만한 감동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 대상으로 누구를 잡았느냐를 살피면 인터뷰어의 철학과 관점, 통찰력 등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터뷰 기사를 찾아 '누구를', '어떻게', '왜' 기사로 썼는지 분석하면서 자신의 의미 부여 능력과 가치 발굴 능력을 키워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뷰는 뉴스의 발원지이자 종착지인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끝나는 영원한 의미 부여와 가치 발굴의 작업이다.

2) 인터뷰 기사의 특성

인터뷰 기사의 서술 방식은 일반적인 실용문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주제에서 이야기를 꺼내다가 특정 분야나 구체적인 사안으로 점점 접근하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점차 크게 윤곽을 잡아가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식들이 서로 얹히며 매우 다양한 인터뷰 기사가 세상에 나온다. 즉 인터뷰어(interviewer, 주체)와 인터뷰이(interviewee, 객체), 대화 주제,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인터뷰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는 묻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눈을 맞추고 ‘대화’ 했고, ‘대화’로 글을 썼습니다. <퍼슨웹>의 인터뷰 글은 형식이 다양합니다. 순전한 녹취록이 있는가 하면, 다큐멘터리나 에세이도 있고 어떤 것은 단편소설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양방향인 한에서, 어떤 형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쓴 사람들은 그 대화가 자기에게 준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형식을 찾아서 글로 써왔습니다. 자기 참조적일 뿐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은 말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글들이 아마로 새로운 문학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퍼슨웹 www.personweb.com)

대개의 경우 신문 기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육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묻게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전 수출을 하게 된 쾌거의 주역들을 인터뷰한다고 하자. 약 200억 달러의 대한민국 최초 원전 수출이 확정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육하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며 상대의 대답을 의미 있게 이끌어내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오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전 수출에 성공한 실무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삼느냐, 전후좌우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애썼다는 대통령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느냐는 인터뷰 기사 작성자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터뷰 기사의 면면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의 네트워크와 그 의미까지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물어보고 답하는지 따지는 것은 인터뷰 기사의 의미를 좌우한다. 겉에 드러나는 인터뷰 기사 내용만 읽으며 고개를 끄덕거린다면 다각적이며 심층적으로 읽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인터뷰 기사를 쓸 때도 단지 상대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는 식으로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된다.

3) 인터뷰 기사 분석

“실패를 낙오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경제 어렵게 해”

실패도 사회적 자산이다

〈7〉 안철수 교수 인터뷰

1)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안철수(47·사천)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28일 〈한겨레〉와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처럼 기업 환경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역경을 딛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실패를 낙오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그 동력을 갈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환경 어려울수록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필요”

“중소·벤처기업 재원 확대, 이면계약 관행 수정해야”

2)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다. 안 교수는 사라고 들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을 둘러싼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현재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를 들었다. 안 교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빚을 얻을 때 또는 심지어 투자를 유지할 때도 대표이사도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빚이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 돼 냉정하게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만두지 못하고 손에 가나는 사업도 선급이라도 건지려고 뛰어드는 바람에 산업 전반적으로 공정가격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한 기업만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다른 기업들은 모두 건강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말해가는 기업에 계속 압력을 해서 공정가격을 무너뜨리고 결

국 다른 기업들까지 망하게 만든다”며 “외국 학자들은 이를 ‘종비 경제’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3) 안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 정신을 심어준 곳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도 100개의 기업이 창업했다면 겨우 한 곳만 성공할 정도라고 한다. 안 교수는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이 아닌 ‘실패의 요람’이라고 부른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화신을 닮았음에도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다시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를 발판으로 다시 기회를 잡은 기업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돼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처음 시작하는 기업가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본질은 성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 기업들에 대한 처리 시스템에



서 찾을 수 있다”며 “밝은 면이 존재하려면 어두운 면에 대한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 가운데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사하다. 그런데 정책 문제가 창업자 자신에게 있을 때도 많다. 안 교수는 “창업자가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나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일할 수밖에 없는 공급사슬 구조가 중소·벤처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아직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 대학과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정부 정책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5) 안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복돋우기 위해 실패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기 힘들다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이면계약 등의 잘못된 투자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계기업은 빨리 퇴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멘토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실무 지식을 최단기간에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문가들을 멘토로 활용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추가적인 개발 요구로 계약 당시보다 비용이 2배가 드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납품까지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이정훈 기자 jh9242@hani.co.kr
사진 안철수연구소 제공

후원 중소기업청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한겨레 2009년 7월 30일 14면

▶ 예시문 분석

제시된 기사는 '실패를 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경제 어렵게 해' 라고 헤드라인을 달아, 안철수씨와의 인터뷰가 무엇을 이슈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게 하면서 동시에 호기심을 갖고 본문을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체 5개 문단으로 이뤄진 이 글은 인터뷰 전체의 핵심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앞에 내세운 후 다음 문단부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는 두괄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첫째 문단에 주제문을 담고 둘째 문단부터 다섯째 문단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사실을 하나 또는 여럿 내세우며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문단에서는 실패를 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기사 전체의 주제문을 담고 있다. 둘째 문단에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를 예로 들며 기업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셋째 문단에서는 실패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미국 실리콘 밸리 시스템과 우리의 경우를 대조하게 함으로써 인터뷰이의 문제의식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준다.

넷째 문단에서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의 문제점과 현실을 지적하고, 다섯째 문단에서는 앞에 지정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차례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을 밀도 있게 정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적절히 섞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특징이다. 또 인터뷰이에 대한 감정적인 찬사를 남용하는 대신 이슈에 대한 인터뷰이의 생각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돋보인다. 인터뷰를 할 때 신상에 관한 소소한 질문을 피하고 인터뷰이에게 끌어내고 싶은 사회적 의제를 분명히 설정한 점이 밀도 있는 인터뷰가 가능하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기본형 글쓰기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 기사는 특히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한다.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글을 썼는지,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부주의로 실수해 틀린 내용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며 읽어야 한다.

인터뷰 기사를 쓸 때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취재 대상인 인터뷰이와 한정된 상황과 관계에서 만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실과 어긋난 정보나 지식을 드러내면 인터뷰 기사를 망칠뿐만 아니라 인터뷰이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기사 쓰기는 인간적인 상호 신뢰 속에서 인터뷰이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발굴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단계’에서는 신문에서 각종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 읽은 후 무엇이 가장 흥미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따져본다.

이때, “나는 이 인터뷰 기사가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식으로 서너 줄 정도의 글을 쓰면 효과적이다. 어떤 인터뷰 기사에 흥미가 가는지, 어떤 방식의 인터뷰 기사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맞춤법이나 문법적인 면들은 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1단계

나는 이 인터뷰 기사가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여러 기준들을 모아서 흥미 있는 인터뷰 기사란 무엇인지 자기 의견을 정리한다. “나는 훌륭한 인터뷰 기사의 기준은 ○○○○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식으로 써보자.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2단계

나는 훌륭한 인터뷰 기사의 기준은 ○○○○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3단계’에서는 신문에서 인터뷰할 사람을 찾는다. 신문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굴하려는 인터뷰어의 자세가 확고하다면 인터뷰를 하지 못할 대상은 없으며,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인터뷰 기사를 쓰지 못할 리 없다.

이런데 신문 광고에 등장해 상품을 선전하는 모델도,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갓길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운전자도, 독자 투고를 한 시민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을 인터뷰하고 싶다. 왜냐하면~” 식으로 써보자.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3단계

나는 ○○○을 인터뷰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음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인터뷰이에게 할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해 보자.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4단계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2년 만에 '용서는 없다'로 촬영장에 복귀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용서는 없다'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화였다면 선택하기 힘들긴 했을 거다. 영화 현장에 못 나간 지 꽤 됐을 때여서, 설경구 선배가 선택한 작품이었기에 부담이 덜했던 거지.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연기적으로 나를 비워내는 작업', 잘 되고 있다. 쉽지는 않지. 저는 항상 완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 가는 것 같다. 예전에는 그런 게 콤플렉스로 느껴지거나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 것 같다. 대신 그렇게 부족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반대의 용기가 생기는 거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콤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단점이 많기 때문에 뭐든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결국엔 난 단점투성이니까. 가난한 자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영화를 할 때도 과거엔 지금 하는 영화가 항상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은 본능적인 느낌을 받으며 연기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과장인 것 같다. 결국 내가 쌓는 거니까.

연기적인 면에선 토대를 잘 닦으며 단단한 커리어를 쌓아온 편 아닌가? 아니다. 데뷔 10년 차이지만 난 아직도 아마추어다. 솔직히 내 연기에 대한 확신,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내 연기를 잘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계속 채워가는 중이다.

오랜 연인이다 보니 공효진과의 결혼설이 몇 차례 불거지기도 했는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할 거다.

영화 '용서는 없다' 류승범 "데뷔 10년 차 배우? 난 아직도 아마추어"

다만 효진 씨나 나나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서로가 때가 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나 역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일상의 삶도 영위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2010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낼 것 같다. 방자전이 1월 촬영을 마치면 친형인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는 '부당거래'(가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해영 감독의 '페스티발'도 함께 할 꺼란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할 생각이다. 일단 방자전은 1월 초 크랭크업 된다. 승완이 형과는 '부당거래'란 스릴러 영화를 하게 됐는데 사실 감독과 배우이기 전 친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작업하는 건 엄청난 중압감이 있다. 황정민 선배와도 '사생결단' 이후 다시 투 톱으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부담감이 함께 오는 작업이지. '페스티발'의 경우 제가 요즘 화두로 삼고 있는 것과 딱 맞았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 되는 작품이다. **CL**



'용서는 없다'는 류승범의 살인마 연기 변신으로 캐스팅 때부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타고난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본능적인 연기 감각을 지닌 류승범이 살인마를 연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것. 류승범은 인물에 몰입하기 위해 촬영하는 동안 설경구, 한혜진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인물에 몰입했다. 덕분에 비정상하고 잔인한 모습을 섬뜩하게 연기해 냈다. **조은영 기자 / 사진 강영국 기자**

5) 심화형 글쓰기

인터뷰 기사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다양한 인터뷰 기사들을 평소 읽으면서 인터뷰를 착실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먼저 신문에 기고할 만한 인터뷰 가능 인물들을 주변에서 찾는다. 기고할 신문은 전국적인 종합일간지가 아니어도 좋다. 지역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같은 데도 좋다.

뉴스의 주인공이나 책의 저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인터뷰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사전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상대의 신뢰를 얻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인터뷰어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접근하느냐가 인터뷰의 성공을 좌우한다. 외국의 유명한 기업 CEO들에게 영어로 편지를 보내고 그 답변을 묶어 책으로 펴낸 경우가 좋은 예이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나 문학 작품 속의 허구적인 인물을 가상 인터뷰하는 것도 당대 역사를 파악하고 현재 관점에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어 좋다.

인터뷰이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철저히 찾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만나 인터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써 보자.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인터뷰 요청 편지

안녕하세요.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인터뷰 계획 메모

40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서로 다른 관점의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 읽고, 자신이 인터뷰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는지 가상 인터뷰 기사를 써보자.

(예시 1)

“무책임한 자기만족用 판결 곤란… 기본에 충실해야”



파워인터뷰

인터뷰=박민 전국부장



前 헌법재판소장
김 용 준 변호사

▶권력기사 1면

■ 김용준(72) 전 헌법재판소장이 파워인터뷰 4번째 손님으로 선정된 것은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았다. 권진국 부총리의에서 김 전 헌재소장을 인터뷰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3일 오후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법원 판결의 이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용산 참사 관련 검찰 수사기록 열람 허용을 결정한 것은 이날 부장회의가 끝날 무렵이었다.

단언하건 인터뷰는 단초 초점도 현재 진행 중인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확정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의원 국회폭력 무죄 판결, 시국선언 전교조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심지어 김 전 헌재소장에 대한 인터뷰가 이뤄진 다음날에는 예별로 그처럼 공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선고와 내려졌다. 인터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의성이 있는 사안에 최고의 인물일 수밖에 없을 줄을 짐작했었다. 그러나 법관으로 34년, 헌재소장으로 6년, 다시 변호사로 10년을 보낸 김 전 헌재소장으로서의 단정함 현저에 대해, 그것도 진정성을 통해 발언을 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출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대면인터뷰와 20일, 21일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 김 전 헌재소장은 법조계와 우리사회가 귀기여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지난부터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우리사회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사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의 경우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이 신분을 보고 있었던 만능 강 의원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럼 공무원이 화장실 가는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일부 법관들이 법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는데 판결은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젊은 법관을 평가 잘못 생각

최근 기본에 안맞는 판결 찾아

판결은 국민의사 표출하는 것

보편타당한 가치를 갖춰야

그의 답변은 단호했지만 원로 법조인답게 흥분하지 않고 현법과 원칙을 제시하며 심평을 이어갔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양심’이란 개인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이란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나 이념, 기준을 의미합니다.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후배에게 ‘명판결을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한 판결을 해야’고 말해왔습니다. 최근 젊은 법관들이 기분에 안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 종종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인 자리에 있는 법관은 자기 생각대로 재판하기 이후 후속심 특히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내 앞 아닙니다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일견

양심에 따른 판결로 보이지만 사실 자기만족일 뿐이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별 관련 PD수첩 보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보도의 상당부분이 허위였다고 판결했고 MBC 스스로도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덮어놓고 모두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판결과 국민의 인식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괴리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젊은 법관들의 판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부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보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판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판사들이 10여년 전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관화하려 한 것을 판들이 사법부담을 법관화에서 정해가 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사건배당도 법관화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대한 평가제를 없애려고 주장해 선임판사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근무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스템은 변호사나 검사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종신제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 등에 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우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바로 법관에 임명돼 선배 법관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경력을 쌓아가는 직업판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판사들도 개인별로 능력의 차이가 있고 분야별로 능력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를 하지 않으면 재발견기를 해서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법원 수속) 안 된다’고 잘라내 하는데 젊은 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8면에 계속

문화일보 2010년 1월 22일 17면

(예시 2)

■ 인터뷰 ■ 1차 사법파동 당시 법복 벗은 최영도 변호사

“최근 사태 70년대 초와 비슷”

‘사법부 독립’ 국민이 지켜줘야 … “무죄판결한 판사들 자랑스러워”

최근 사법파동과 관련해 무죄판결이 잇따르자 법원에 대한 견제와 국회, 보수단체 등의 공격이 극에 달했다.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신변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대법원장 관저에는 개탄세례도 이어졌다. 지난 70년대 초 이와 비슷한 혼란 속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던 젊은 판사가 있었다. 결국 사법파동으로 정권의 눈여겨 보지 않았던 최영도 변호사는 23일 만났다.

70년대 사법파동 후 판사직을 떠나 인 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최영도(사건·72) 변호사는 “오늘날과도 같은 시대에 내 가 경험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와 매우 흡사하게 느껴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 당시에도 검찰이 공안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해놓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판결 간섭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내용을 함의할 때 중앙정보부의 도정을 피해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일도 벌어졌고 검찰이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면 미팅당하고 예금 통장을 조장하고 ‘빨갱이’로 몰리는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71년 7월 1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최 변호사는 “그것은 정권권력이 법원을 휘어잡고자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판사들과 대법원장직을 이어가 법무부 장관부터 담청장까지 책 임지고 불복·이복·대통령 친해배달과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도돼 다짐을 받아들여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 대법원장에 써서 제출한 것이 ‘법원 사법권 침해 사례’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법권 독립선언서로 외전됐고 미로 된 박헌은 다시 옮겨졌다”고 회고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영장 기각, 보석허가, 징역유예, 무죄판결을 가장 많이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었다. 사법

파동으로 쫓겨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무죄 판결 50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 때는 국가보안법, 징비법, 긴급조치 등으로 수많은 공안사건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차라리 편지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 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당시 사법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은 최 변호사는 정전후 전 KBS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피다수집 무죄 판결 등 일련의 사법부 보편성 “지금 사법권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요즘 젊은 판사들이 무죄 판결한 것이 자랑스러운가” “무죄인 것을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당혹스러워 하거나 속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을 하는 데

고뇌를 하게 되고 판결문을 쓰는데 유죄 판결 50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피다수집 무죄판결로 검찰이 흥분해서 법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피다수집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할 때 담당 검사도 도저히 기소가 안 된다’고 한 사건이었다”며 “수사 검사가 기소가 안 된다고 본 것을 법원이 무죄로 무죄로 고 안할 수 있었겠냐”고 되물었다. 지금 사법부는 젊은 판사들이 공안사건에 대해 용감하게 무죄 판결하면서 사법부의 존엄의의를 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강기갑 의원 사건과 관련해선 무죄라고 아니라고 단언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했음을 장면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통도 때 미란다권까지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무리하게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았기 당시 국회의장 행위가 공무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61년 고등고시 13회 합격
△65년 대법정판사 판사
△7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73년 변호사 개업
△92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자
△9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소를 잘못한 것은 검찰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좀 더 무거워 죄로 들고 가기 위해 폭력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지켜줘야”는 최 변호사는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부, 여권, 보수단체의 행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무리 무죄판결에 불만을 갖더라도 법원 원장에 계한 면직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또 판사 집 앞을 찾아야 시위를 했던 적은 없었다”며 “법무부 불합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극히 평범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최 변호사는 “미네르바, 시국선언 고사, 공무원들에게 사표전도 못하게 하고 있는 데다 시국선언도 단행한 일도 많으니까 도저히 보편”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은 정부 업무방해죄

내일신문 2010년 1월 25일 21면

● 인터뷰 기사 실제 글쓰기 –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n interview articl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gray area, providing a template for text entry.

04

문화평론을 활용한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04

문화평론을 활용한 글쓰기

1) 개요

▶ 학습 개요

넓은 의미에서 문화란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시도와 성과다. 따라서 문화는 문학과 미술, 음악, 영화, 사진, 출판 등과 같은 장르를 두루 아우르며 여행과 취미 등으로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문화의 범주 속에서 삶을 더욱 즐기고 누린다.

문화평론은 문자 그대로 문화에 관한 평론이다. 그것은 문화의 세부 장르나 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다. 이를테면 문화평론은 영화관에서 나오며 방금 전에 본 영화에 대해 '정말 감동적이야. 사랑하면서도 연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 슬펐어' 같은 소박한 감상 수준에서부터 현대 미술 전시회 작품 해설집에 실린 '선(禪)의 세계를 지향해 온 작가의 일관된 추구가 절제된 선의 사용과 풍부한 여백으로 더욱 심오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적 도전이라 할 만하다' 같은 본격적 비평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문화평론을 읽고 쓰면서 다양한 문화를 쉽고 깊게 즐기다 보면 삶을 진정으로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발랄한 감수성과 심도 있는 통찰, 세상과 인생의 성찰 등을 문화평론을 통한 글쓰기에서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목표

- 다양한 문화를 실생활에서 쉽고 깊게 즐기기 위해 문화평론 기사들을 읽는다.
- 여러 문화 분야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다각도의 심층적인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운다.
- 관심 있는 문화 분야를 찾아서 비평문을 써본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화에 관한 평가와 의견이 담긴 기사들을 평소에 잘 읽는다.				
관심 있는 문화 분야들이 조금씩이라도 점점 늘고 있다.				

▶ 문화평론, 이렇게 해보세요.

문화평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먼저 관심 있는 문화 분야들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평소에 무미건조하게 '생존'만 해온 사람이라면 문화를 통해서 '생활'해야 한다. 다음에는 관심 있는 문화와 관련된 성과들을 꾸준히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레에 관심이 있다면 발레 공연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식이다.

아주 간단하게는 좋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평가 위주로 쓰는 것도 좋다. “나는 이 책이 참 좋다(좋지 않다). 왜냐하면~” 식으로 간단한 소감부터 시작해서, 좀 더 엄밀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평가를 점점 많이 덧붙여 나가 가벼운 서평 쓰기에 이르기까지 글을 쓰는 것도 좋다. 문화평론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따라서 각자 자신이 즐기는 문화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는 데서 출발하면 무난하다.

2) 문화평론 기사의 특성

문화평론은 공연이나 저술 같은 개별적인 문화적 시도와 성과 등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다. 또한 문화 창조자인 예술가나 작가 등의 특성과 변모 등을 따져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방향을 문화 창조자와 함께 모색하며 문화 수용자들에게 감상과 향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글이다.

신문에는 영화와 연극, 공연과 전시, 서적 등에 관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가 늘 실린다. 특정 작가나 창작 그룹이 반향이 큰 작품을 발표했거나 또렷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특별하게 주목하는 기사들 또한 실린다.

또한 문화평론은 관련 분야의 역사적 성취와 미래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글이다. 따라서 문화평론은 지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도와 성과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서부터 동시대의 다른 노력과 성취에 대한 폭넓고 깊은 접근을 함으로써 각 문화 분야의 역사적 의의와 구체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글이기도 하다. 이 또한 신문에서 지면을 많이 할당하여 전면 기획 취재나 장기간 집중 연재 등의 형태로 상세히 조명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문화평론은 개별 작품이나 특정 작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품들을 모두 추적하며 가치를 평가하고 나아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의 실상과 의미를 따지는 등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글이다.

신문의 문화평론 기사는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가져야 할 작품과 작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물론 거대한 문화 현상의 전모와 흐름 등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굵직하게 짚어내어 해당 분야를 자극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본격적인 문화평론 기사들보다 쉽게 제시되 때로 반대되는 입장들을 모아 논쟁과 같은 불꽃 튀는 대결의 마당을 펼쳐 흥미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3) 문화평론 분석

여의춘주

독서, 미래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다

일본 신문을 볼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니혼게이자 등 어느 신문을 봐도 1~6면의 광고 지면은 은통책 소개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광고 단가로 따지자면 비싼 지면일 텐데 책 광고라니, 일본의 출판사들은 그렇게 재력이 있는 걸까.

하긴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따지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을 테니 출판 기업들의 매출도 만만치 않겠지. 어쨌거나 책 광고를 앞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한국 신문들과는 참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언젠가 아사히신문의 한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그런데 그가 되레 정색하고 되물었다. 한국 신문들은 안 그래요? 신문의 광고 배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전통 있는 명문 출판사의 책이 아니면 아무리 광고료를 많이 준다고 해도 1~2면 광고에 들어갈 수도 없다. 책에 대한 경의가 대단하다.

그만큼 출판과 신문의 격조를 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새

일본의 출판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신간 시장이 위축되고 수십년을 이어온 유명 집지의 폐간이 잇따른다. 그 대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문고판 신서(新書)의 도약이다.

일본에 신서가 처음 등장한 것은 71년 전인 1938년이다. 문고판의 시초인 영국의 펄거북스가 1935년 나온 데 이어 1937년 펄리칸북스, 1939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자국은 젊을 때일수록 중요하고 그 체험은 일생을 좌우한다”

미국 포켓북스, 1941년 프랑스 크세주문고 등의 출현과 궤를 같이 한다. 전쟁과 불황으로 좋은 책을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당시 문고판의 한결같은 존재 이유였다.

일본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 251개의 출판사가 3109종의 신서를 냈는데 2007년엔 출판사수는 155개로 줄었고 간행은 3420종으로 늘었다. 유명 출판사만 살아남아 신서 출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불황을 맞아 값싼 신서를 찾아 읽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에서 문고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였다. 40~50대 독자들 중에 삼중당문고, 을유문고 몇 권 사서 읽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문고판 봄은 오래 가지 못하고 80년대 이후 침체를 거듭했다. 요즘 몇몇 문고판 시리즈가 가로읽기로 장정을 바쳐 내놓고 있지만 출판 규모는 일본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물론 읽는 것만으론 사회의 원동력이 못 된다. 국제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는 최근 일본의 경제적 쇠퇴 원인을 두 가지로 꼽는다(‘지식의 쇠퇴’ 2009). 일본인들의 생각하는 힘 부족과 주변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다. 읽는 행위가 제 삶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열심히 읽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읽은 행위와 삶은 따로 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질문하기를 즐겨하면 만사 여유만만으로 이어진다는 호문죽유(好問卽裕)의 의미를 맛보려면 먼저 책



조용래
논설위원

을 읽어야 한다. 질문을 불러들일 구체적인 자극 없이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지적·심리적·문화적 자극은 젊을 때일수록 중요하고 그 체험은 일생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책 읽기는 마치 미래라고 하는 허공에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독서는 지금 당장 삶과 피가 되는 음식섭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기억도 없고 경로도 확실치 않다.

분명한 점은 지금 쓴 화살이 미래 언젠가 나의 삶 한가운데를 관통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때 책이라는 텍스트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컨텍스트와 결합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진다. 경기불황에, 취업난에 마음 졸이는 젊은이들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이 가을의 독서는 또 언제 우리 가슴으로 날아들 화살이 될 것인가.

choyr@kmb.co.kr

국민일보 2009년 10월 20일 22면

▶ 예시문 분석

제시문은 일본 신문의 경우 광고의 주요 지면이 항상 책 광고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소개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어질 논제로 주의를 끌어들이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 셋째 문단부터 여섯째 문단까지는 신문 광고와 문고판 출판의 사례를 통해 일본 독서문화의 단면을 소개하고, 일곱째 문단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한국의 독서문화를 제시함으로써 논제를 좁혀간다.

여덟째 문단에서는 일본의 독서량이 엄청남에도 최근 국제사회를 리드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서 행위가 삶의 변화 의지로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 독서문화의 한계를 지적해 화제의 전환을 꾀한다.

아홉째 문단부터 끝까지는 이 칼럼의 논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제시하고 분석한 내용들로부터 설득력 있게 ‘젊은이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를 끌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논지를 글의 맨 마지막에 제시하는 미팔식 구성이면서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을 취해 글을 읽는 맛을 더했다.

이 글의 경우 일본의 독서문화를 드러내주는 소소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읽는 흥미와 설득력을 높였다. 대단하지 않은 소재지만 평범한 독자들은 잘 알기 어려운 사실, 또 알더라도 그 의미를 새겨 보지 않고 스쳐 지나갔을법한 사실에서 소재를 취해 숨쉴 있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 점에서 글쓴이의 전문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4) 기본형 글쓰기

↳ “나는 이 작품이 좋다. 왜냐하면~” 식의 글을 써보자.

나는 이 작품이 좋다. 왜냐하면~

↳ “이 작품, ○○○하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식의 글을 써보자.

이 작품, ○○○하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 “나는 이 작가가 좋다. 왜냐하면~” 식의 글을 써보자.

나는 이 작가가 좋다. 왜냐하면~

5) 심화형 글쓰기

↳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를 보고 평(評)을 써보자.

↳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예전 작품들이나 다른 감독이 만든 3D 영화들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글을 써보자.

※참고

3D(3차원) 영화는 첨단 발명품이 아니다. 이미 1950년대 초반에 3D 영화가 만들어졌다. 1953~54년의 2년 동안에 [브와나 데블< Bwana Devil)] 등 무려 69편의 3D 영화가 제작됐다. 최근에 3D 영화 붐이 다시 일고 있는 셈인데,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008)는 실사 방식으로 제작된 최초의 풀 3D 영화로 꼽힌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해저 3D 다크멘터리 [심해의 영혼들](2003)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최초의 아이맥스 3D 장편 애니메이션 [콜라 익스프레스](2004), 3D 록 다크멘터리 [한나 몬타나와 마일리 사이러스](2008) 등이 발표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 영화 평론의 의미를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써보자.
또는, 다음의 기사에 나온 '한국영화저널리즘포럼'(가칭)의 창립 취지서를 써보자.

2009 영화계 미리보기

❶ 영화비평의 시대는 끝났는가

영화계처럼 재빨리 발전과 퇴보와 변신을 거듭하는 곳이 또 있을까. 어제의 새 것은 오늘 낡아보이고, 내일 또 다시 새 흐름이 밀어닥친다. 2009년을 맞아 영화계에 감도는 미묘한 움직임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오늘 나비의 날갯짓이 내일 문화계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재미’ 찾는 시장에 갇힌 ‘의미’ 찾기

영화평론가의 어휘 선택 하나에 흥행이 좌우되던 시기가 있었다. 대중은 평론가가 내놓은 날카로운 평가를 경청했고, 평론가는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밤을 새워 고민했다. 그러나 영화평론이 빛을 내던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듯 보인다.

◇한국의 경우-8년 역사의 영화 주간지 필름2.0은 지난해 말부터 발행을 중단했다. 경기 및 집지 업계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필름2.0 측은 “집지 발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3월초쯤 재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09 경향신문 대중문화 평론(영화, 방송, 대중음악) 부문 응모작은 전년과 같은 32편이었다. 그러나 영화평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 응모작 중 영화평론의 비중은 가파르게 절반을 넘었다. 흥상수, 김기덕 등 전통적인 ‘작가’에 대한 평론도 있었지만, 그 뒤를 잇는 새로운 감독에 대한 본격적인 조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영화계의 산업적, 예술적 침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영화평론가 김영진씨(명지대 교수)는 “이러면 개봉 2~3일 안에 영화의 성패가 결정되는 속전속결의 사이클에서 평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다”며 “영화계에서조차 ‘좋은 영화’보다는 ‘돈이 되는 영화’를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영화홍보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영화평론이 흥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요즘 관객은 영화를 ‘재미있다’ ‘없다’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영화의 의미와 속뜻을 밝히는 평론이 읽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해외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비슷

하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언론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영화평론가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뉴욕타임스의 평론가 미놀라 다기스는 지난해 영화계를 결산하는 인터뷰 첫 머리에 “우울한 한 해였다. 언론과 영화계에서 일자리를 잃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영화 저널리즘 분야로는 처음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유명 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지난해 말 자신의 블로그에 ‘영화평론가의 죽음, 연예종교(CelebCult)’의 영광’이란 글을 올렸다. 에버트가 이 글을 쓰게

10월 ‘누가 평론가를 필요로 할까’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특집을 마련했다. 잡지는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리뷰를 쓰는 상황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평론을 읽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영화평론의 미래는-에버트는 영화평론가의 존재를 ‘광산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했다. 그는 “평론가의 몰락이 문제가 아니다. 지적이고 의미있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뉴스는 여전히 기대하지만, 신문은 왜소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 프랑스 영화를 비판함으로써 혁신적인 영화의 흐름인 ‘누벨 바그’를 이끌어낸 것은 프랑스 영화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평론가들이었다.

김영진 교수는 “깊이 있는 영화는 여전히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독소리를 질설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영화계도 일본처럼 소수의 평단과 소수의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만이 소용하는 추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찬일, 김시우, 유승한씨 등 소장평론가들을 주축으로 한 한국영화저널리즘포럼(가칭)이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들의 인상 비평과 스타 중심의 기사, 배급사들의 광고 전락에 기댄 지면현황에 등이 저널리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비판적, 대안적 담론 형성을 가로막아온 게 사실”이라며 “한국영화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집단적인 담론 생산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한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평론지 휴간·신춘문에 평론 응모 급감

네티즌들 리뷰에 전문가 영향력 상실

“좋은영화·소수 평단의 소통만 남을듯”

된 계기는 최근 AP통신이 내진 정책이다. AP는 모든 연에 관련 기사의 단어 수를 500개 이내로 제한했고, 외도, 이혼, 마약중독, 스캔들 등 대중이 원하는 절박한 연에 뉴스에 초점을 맞추라고 필자들에게 주문했다.

에버트는 “연예종교는 우리의 문화를 산 채로 먹어치우고, 신문은 스스로 몸을 내맡긴다”며 “짧은이 예전 초라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병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사생활을 침범하면서 또 정작 의미있는 성취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월간 영화지 사이트 엔드 사운드는 지난해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gray area.

05

신문을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05

신문을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신문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문학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것이다. 세상사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신문에는 정치와 경제 분야같이 복잡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기사와 사진도 실린다. 기사나 사진을 비롯한 신문의 여러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그려내는 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살이가 치열해질수록 감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감성이 없는 인간은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감성이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담아내는 신문을 활용해 문학적 글쓰기를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 학습 목표

- 신문에 실린 여러 장르의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써본다.
- 신문의 여러 구성 요소를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다.
- 자신의 감성이 드러나는 문학작품을 직접 써본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신문에 게재된 문학적인 글을 자주 읽는다.				
나는 신문의 문학적인 글을 읽고 감상할 수 있다.				

2) 문학적 글쓰기의 특징

문학적 글쓰기에는 실용적 글쓰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문학적 글쓰기는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기에 읽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 문학적 글쓰기는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글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대상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은 따지지 않는다. 문학적 글쓰기는 작가가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쓰는 감성적인 글이다. 이 때문에 비유와 같은 여러 묘사법을 쓰더라도 독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수용한다. 실용적 글쓰기와 달리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과정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것은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하는 실용적 글쓰기에서는 찾기 힘든 점이다.

다음으로 문학적 글쓰기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므로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실용적 글쓰기와 달리 문학적 글쓰기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가 아니다. 학생만을 위한 시, 여성만을 위한 수필, 사회인만을 위한 소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아무리 작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글쓰기를 했더라도 독자들은 그 의도에 상관없이 느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기술되는 것이 문학적 글쓰기이다.

한편 실용적 글쓰기는 전달하려는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좋다. 따라서 실용적 글쓰기에서는 과장과 함축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학적 글쓰기에서는 과장과 함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꾸며도 된다. 과장과 함축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순전히 독자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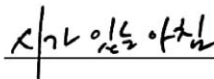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문학적 글쓰기는 실용적 글쓰기와 달리 굳이 독자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실용적 글쓰기는 읽는 대상이 분명하므로 글쓴이는 대상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다. 주로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설정한다. 하지만 문학적 글쓰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기획서나 대입 논술 등과 같은 실용적 글쓰기와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한편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 등은 작가의 작품 의도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물론 문학적 글쓰기는 작가의 작품 의도가 수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3) 신문을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

신문을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신문에 실린 시, 수필, 소설 등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는 활동이다. 신문에 게재된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쓰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신문에 게재된 감상문을 찾아 꼼꼼히 읽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학작품의 감상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감상 활동을 차곡차곡 해나가면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훌쩍 커질 것이다.

다음은 짧은 시와 이에 대한 감상으로 구성된 글이다. 이를 토대로 한 편의 시를 읽은 후 어떻게 감상문을 써야 할지 생각해 보자.



지리산 산청 골짜기 껍질 벗고 살결 마주치는 바람에 몸 속 물기 다 빼주고 씨앗 몇 개 품었다 여물지 못한 꿈 그리움으로 쪼그라드는 시간 시린 시간들 모여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전래 동화 속 주인공 되는가	잘못 길들여진 햇살에 겁비섯도 피 우지만 뽀얀 분이 단맛으로 필 때까지 첫 알몸의 전설을 추억한다. ‘꽃감’-김용택(1952~)
--	---

하늘 높이 켜든 등불 같은 까치밥 몇 개 낚기고 시린 바람 고살에 주렁주렁 내걸린 알감들. 겨울로 가는 조선 풍경의 전형. 몸은 추위도 마음은 따스한 고향 풍경. 꿈에서 여인으로 환생한 응녀로부터 할머니의 할머니 이야기 도란도란 들려주며 꽃감이 돼가는 시간, 시간들. 우리네 시린 시간도 꽃감같이 그리움 여물어 다디달게 익이는 건 아닐는지. <이경철-문학평론가>



중앙일보 2009년 11월 24일 35면

‘꽃감’이라는 시에 평론가의 ‘감상’이 곁들여 있다. 아마도 시인은 오랫동안 꽃감을 관찰한 후에 이 시를 탄생시켰을 것이다. 탕탕하던 감의 원래 모습이 햇살을 받아 점차 쪼그라드는 모습도 살피고, 꽃감이 될수록 나타나는 하얀 분말도 살핀 후에 쓴 시다.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살뜰한 눈이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건져 올린 것이다.

또 평론가는 평자의 눈으로 시의 탄생 배경인 고향과 할머니 이야기에 기대어 감상하고 있다. 세상이 부박해질수록 우리는 시를 멀리한다. 매일매일 시 한 편을 읽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힘든 일을 신문이 대신하고 있다. 신문에 실린 시평은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촉촉한 단비와 같다.

다음 시는 기러기가 V자 편대로 날아가는 모습을 활시위에,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떨어뜨린 하얀 깃털을 눈에 비유하여 쓴 시다. 이 시를 바탕으로 짧은 감상문을 써보자.

시그니 있는 아침

지상(地上)과의 인연
더 차가워져야 한다

몸 비트는 하늘
깃털처럼, 백설(白雪) 쏟아진다

활시위처럼 몸 당겨
겨울로 간다

‘기러기떼’-이정육(1964~)

작살 같은 대오로
하늘을 끌고 간다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느냐. 이 물가 저 하늘 기러기 떼 이착륙과 비행 분주하더냐. 안행(雁行)이 분명히 그어주는 선(線). 가을과 겨울 지상과 하늘 경계는 있거나 한 것이더냐. 살다 보니 그 팽팽한 경계 뚫기 그리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더냐. 기러기 떼가 온몸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끌고 가는 하늘, 내일이면 축복인 양 소담하게 눈 내린다는 소설(小雪). <이경철-문학평론가>

중앙일보 2009년 11월 21일 39면

● 짧은 감상문 쓰기

다음은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수필이다. '상장'에 얹힌 소소한 내용을 담담하게 펼치고 있다. 이 수필을 읽고 짧은 감상문을 써보자. 그리고 상장에 얹힌 추억을 되새겨 보는 기회도 가져보자.

ESSAY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장

“
‘선생님은
1년 동안
학생들에게
멋진 시를
소개해 주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즐겁게
가르쳐 주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



박수진 시인·서울 성보중 교사

내가 어릴 적 가끔 친척집을 방문해 보면 집마다 약속이나 한 듯 안방 벽에 장식처럼 걸려 눈길을 끄는 게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타온 상장을 액자에 넣어 전시물인 양 걸어 둔 것이었다.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상장의 내용과 개수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외판 시골인 까닭에 분교장이나 면장님이 주는 상 정도가 대부분이었지만 시상 기관이나 등급 따위는 그다지 주목거리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잘했다고 주는 상인가 하는, 상의 성격과 상장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화려했기 때문이다.

상장을 타오면 액자를 따로 사거나 맞추어 집안에 걸어두는 풍습을 누가 먼저 생각해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상을 탄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의 지속적인 환기로 인하여 용기와 보람을 가지게 하므로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있을 수 없었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안의 장래를 미리 짐작해 보게 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돌아켜보면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런저런 상이 그리 흔하지도 않았거니와 일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학교나 그저 열심히 다닌 결과로 개근상장 하나 정도를 겨우 손에 쥐는 나로서는 그 빛나는(?) 우등 상장이나 우수상 등의 상장 전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내 열등감과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요즘에 와서는 이런저런 상이 많아지기도 했을 뿐더러 흔스럽게 벽에 상장을 걸어 놓는 집들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도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도 학생들에게 상장을 전달할 때가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다. 학교생활에서는 교과목 상을 비롯해 특기상·모범상 등 각종 교내 대회 수상과 대외 행사에 따른 시상이 줄을 이어 마음 먹고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일 년이면 20회 이상의 수상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것들은 이제 모두 파일 노트라는 편리한 공간에 저장되는데 상을 탄 사람에게만은 어쩌면 일생을 두고 소중히 보관되는 보물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장안해 낸 행동의 변화를 위한 자극제 중 으뜸이 바로 칭찬과 상이 아닐까 한다. 상에 대한 대척점에 벌(罰)이란 것도 있어 이 또한 행동의 변화를 자극하므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말이 있지만 전자가 긍정적이고 상향성 자극제라면 후자는 부정적이고 하향성 자극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가 상 받는 일을 두고 흔히 다다익선이 라고들 한다. 많이 받을수록 빛나고 좋은 일이란 뜻이다. 이를 대변하듯 신문을 펼치면 인물 동정란에 일년 내내 이런저런 수상 소식이 끊이지 않고, 특히 연말이면 붓글을 이룬다.

그 모든 상들이 수상자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값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상 앞에서 행복해하고 더러는 지나치리만큼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상이 분명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많고 많은 상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단연 노벨상이다. 노벨상은 엄격한 심사료도 유명하며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적인 이목이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로 쏠린다. 그러나 그런 상에서조차 가끔은 공정성 시비가 일어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할 때도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선정은 말들이 많았다. 미국 역사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긴 했으나 취임 1년도 안된 현재진행형 인물에게 가담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상이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

의 뜻도 담긴 것이라며 수상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양쪽 모두 상의 본래 성격을 바르게 알고 하는 일리 있는 주장이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물들이 상 받는 일로 세계적인 화제를 뿌릴 때면 숙절없는 별인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

먹고사는 일에 더 열중했던 나의 어린 시절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집안 벽에 걸어두고 자랑할 만한 상장 한 장 제대로 타보지 못했다. 그러나 머리가 굽어지고 어른이 된 뒤에는 운 좋게도 내 이름자가 틀어간 이런저런 상을 더러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받은 상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을 꼽으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에게서 받은 한 점의 상장이다. 몇 해 전 한 해를 마감하는 수업 시간에 내가 일 년 동안 국어를 가르친 반 아이들이 만들어 준 이면지를 이용한 상장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선생님은 1년 동안 학생들에게 멋진 시를 소개해 주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즐겁게 가르쳐 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날짜와 함께 직인을 대신하여 붉은 글씨로 학급을 적어 놓은 손씨가 제법이어서 여느 상장들과 다름이 없었다. 상은 그런 것이다. 비록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한다. 내가 아이들로부터 받은 소박한 상장 하나를 마음에 담고 사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꽃은 바람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멀리까지 향기를 풍기는 법이다. 아라저리 상을 찾아다니려는 안 된다. 상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어느 노스승의 말이 생각나는 연말이다.



조선일보 2009년 11월 26일 37면

● 짧은 감상문 쓰기

둘째, 신문의 구성 요소를 소재로 삼아 여러 장르의 문학적 글쓰기를 해보는 활동이다. 신문은 기사, 칼럼, 광고, 만평, 사실, 통계 자료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여러 구성 요소 중에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문학적 작품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다음 기사는 신문 기사나 책의 글귀를 인용하여 한 편의 시를 탄생시킨 경우를 보도한 사례다. 이를 읽고 신문을 활용한 문학적 글쓰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신문의 구성 요소를 소재로 활용하여 한 편의 수필을 써보자.

“때론 한 줄 기사가 더 시다워”



이시영 새 시집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
신문기사, 책 글귀 인용한 파격 작품 선보여

이시영의 직업은 시인이다. 라고 적을 때 이는 오롯이 문학적 수사다.

‘북쪽 입국심사대의 귀뚜가가 새파란 젊은 군관 동무가 서정훈 형을 세워놓고 물었다. “시인 말고 직업이 뭐요?” “농고 있습니다.” “어보시오. 농고 있더니 말이 됩니까? ... 키 작은 서정훈 형이 심사대 밑에서 바지를 몇 번 추슬러올리다가 슬그머니 그만 두는 것을 바다가 옆에서 지켜보았다.” (‘시인이라는 직업’ 부분)

이시영이 아니라 서정훈의 얘기 아니냐. 라고 되묻는 이가 있을까 싶어 시 한 수 더 적는다.

‘김종삼은 살아가노라면 어디선가 굴욕 따위를 맞볼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이면 되건 안되건 무엇인가 그럭거리고 싶었으며 그게 바로 시도 못되는 자신의 시라고 했다. 마치 이 세상에 잘못 놀러 나온 사람처럼 부재(不在)로서 자신의 고독과 대면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비로소 시인이라고 부른다.’ (‘시인’ 전문)

이시영(57·사진)은 광복 이후 한국

시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시인이다. 스무 살 되던 해 시인이 되어 꼬박 38년을 시인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어제의 시인이 아니다. 근자에 출간된 열한 번째 시집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창비)을 비롯해 시집 4권을 2000년대 들어 발표했다.

하나 이시영이 오늘의 시인인 이유는 이시영 고유의, 저 간단 없는 작업에 있다. 앞서 인용한 두 편의 시처럼 그는 소소한 일상사를 건조한 문장으로 옮겨 적고 시라고 이른다. 일상사만 시가 되는 게 아니다. 신문기사나 책의 글귀도 그를 거치면 번듯한 모양의 시로 거듭난다.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폐지한 지 만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강제노동자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수가 400만에서 2천700만에 이른다고 한다. ... 2006년 한 해에만 미국에 1만 7천500명의 신 노예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선데이, 2007년 3월 25일.’ (‘노예무역’ 부분)

들어보면 인용문만으로 이루어진

문학을 시도한 건 이시영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작가 수전 손택, 독일 사상가 발터 벤야민의 이루지 못한 꿈 중 하나가 인용문으로 지은 책이었다. 그들은 세계를 한 번 해석해놓은 세계를 재배치를 통해 다시 해석하고자 했다. 일종의 인식론적 실험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시영의 생각은 달랐다. 시인은 자신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때론 한줄의 기사가 그 술한 가공된 진실보다 더 시다웠다.”

그러니까 이시영은 시가 어떤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랐던 것이다. 하여 기쁨진 수사나 어여쁜 비유 따위가 애초부터 끼여들 여지가 없었던 거고, 기껏해야 인용문 장독 적어놓고는 그 트머리에 겨우 한두 마디 엮었던 거다. 이시영에게 알몸의 진실보다 시다운 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적는다. 이시영은 시인이다. 이번엔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바로 오늘, 이시영의 모습이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중앙일보 2007년 6월 25일 17면

‘때로는 한 줄의 기사가 그 술한 가공된 진실보다 더 시다웠다.’라는 시인의 말은 힘겨운 세상사를 담아내는 신문 기사가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는 점을 자연스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도 인간은 사람과 사람으로 구성된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회로에락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한 줄의 신문 기사가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음 기사를 소재로 삼아 ‘집과 권위의식’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짧은 수필을 써보자. 두루 알다시피 수필은 특정한 틀에 구애됨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감상을 정리하는 글쓰기 형식이다.

中 다밍현 ‘88년 된 청사의 교훈’

현내 병원·학교시설은 최첨단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과 대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물이면 됐지 번듯한 청사가 뭐 그리 급한가요?”

중국 허베이(河北)성 다밍(大名)현 왕사오화(王曉樺) 공산당서기의 말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들인 호화청사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조그마한 현인 다밍현 정부가 낡은 청사를 개조하는 대신 주민 의료와 교육에 전력을 기울여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다밍현의 공산당위원회(현당위원회)와 인민정부(현정부)는 ‘가장 후진 건물은 현정부 청사(最破的是縣政府大院), 가장 좋은 건물은 학교(最好的是學校)’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주민 최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인구 78만명의 다밍현의 현당위원회 청사와 현정부 청사는 1921년 지어진 당 조직부 사무실을 비롯해 모두 1950~1960년대 지어진 2층 벽돌 건물이다.



◇1921년 지어진 중국 허베이성 다밍현 공산당위원회 조직부 건물.

현당위원회나 현정부 청사 건물은 나무로 만든 계단이 삐걱거리고 벽돌로 쌓은 벽이 갈라질 정도라 ‘전국에서 가장 낡은 현청사’라고 중국 매체들은 표현했다. 현당위원회와 현정부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숙소도 천장과 벽면을 잇는 구석 부분이 떨어지는가 하면 공간 절약 위해 작은 사무실을 다시 두 칸으로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첨단시설로 건립된 다밍인민의원 청사.

상태는 정반대였다. 13층짜리 다밍인민의원(醫院)은 첨단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다밍일중(一中·중고교) 등 현내 학교를 짓는 데는 최신 자재가 사용됐다.

또 현청사 공무원들은 땀값을 주위 난방을 해도 현내 모든 학교는 온풍기나 중앙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베이징=김정중 특파원
ck@segye.com

세계일보 2009년 11월 25일 6면

● 신문 기사를 소재로 삼아 수필 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prompt above.

한편 신문의 사진이나 만평도 백 마디 말보다 진한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신문의 사진이나 만평을 소재로 삼아 한 편의 글을 써보는 것도 문학적 글쓰기를 익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 사진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포인세티아 사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꽃에 얹힌 이야기’를 주제로 한 편의 수필을 써보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20일 경기 고양시 원당동의 한 농원에서 원예업자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출하될 국산 포인세티아를 살펴보고 있다. 고양=정하종기자 maloo@
문화일보 2009년 11월 21일 1면

신문에서 사진이나 만평은 답답한 지면에 숨통을 열어주는 창문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 언어로서도 기사 이상의 비중을 가진다. 그러므로 신문 사진이나 만평 속에 함축된 여러 의미를 풀어내다 보면 문학적 글 쓰기에 도달할 수 있다.

● 신문의 사진을 활용한 수필 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intended for a student to write a literary essay using newspaper photos.

06

독자투고를 활용한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신문의 독자투고를 활용한 글쓰기를 익힐 것이다. 논술이나 글쓰기 연습을 하는 데 사실과 칼럼이 많이 이용되는데, '독자투고'도 훌륭한 글쓰기 교재이다. 독자투고는 특히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장의 목표는 독자투고를 직접 써봄으로써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힘을 쌓는 것이다.

▶ 학습 목표

- 독자투고의 특성과 고려해야 할 점을 이해한다.
- 독자투고의 분석을 통해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방법을 알아본다.
- 직접 글을 작성해 봄으로써 올바른 의사 전달법 및 표현법을 익힌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독자투고를 읽고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독자투고를 읽고 나의 생각이나 견해를 짧은 글로 쓸 수 있다.				

2) 독자투고의 특징

신문의 '독자투고란'은 독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공간이다. 생활 불편부터 사회적인 쟁점까지 독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교환되는 지면이다. 독자의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변화에 일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독자투고란'은 '여론의 광장', '대화와 토론의 장(場)'으로도 불린다.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이 등장하고 주장과 견해가 다양해 사회 현상에 대한 간접경험과 이해를 돕기도 한다.

독자투고의 소재는 일상생활에서의 건의사항, 미담, 사회현상 등에서 찾는다. 독자투고는 사실이나 칼럼에 비해 글이 짧다. 하지만 분량은 적어도 글로서 갖추어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글쓰기 교재로서 손색이 없다. 글의 분량이 적다는 것은 글쓰기의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자투고를 잘 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글을 쓰는 목적과 자신의 주장 및 견해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여러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말하려는 초점을 1~2개로 압축해야 한다. 셋째, 나름대로의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비판만 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이 빠진 글은 무용지물이다. 넷째,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허위·왜곡 사실을 담거나 억지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

독자투고는 대체로 의견제시형, 캠페인형, 고발형, 주장형, 회고형, 해명형 등으로 나뉜다. 글은 ▲문제 제기 및 분석 ▲의견 개진 ▲대안 제시로 구성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2~3장(400~600자) 정도다. 제목은 9~12자(±2자)가 적합하다. 글의 구조는 미괄식이 많다. 글에서 밝히려는 문제점은 서론에, 해결 방법은 본론이나 결론 부분에 제시한다.

이제 독자투고를 분석하며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의 표는 '분석적 읽기'의 대표적인 방법들이다.

- 주장하는 내용과 대안 알아보기(자신의 대안 작성하기, 주장에 따른 이유나 근거 찾기)
- 신문 기사 내용과 독자의 글 대비하기(자신의 주장 전개하기)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투고된 내용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
- 투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독자의 관심사 파악하기
- (각 신문의 투고 글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문제의 초점·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등

한편 글쓰기 교재로서 '독자투고'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문장 구조를 익히는 데 좋다. 주술 관계, 육하원칙, 표현 방법, 문체 등 문장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 둘째, 문단 구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론-본론-결론'의 구조가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 셋째, 논점을 정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유를 밝히고 강조·대조·비교하여 분석하는지 알릴 수 있다.
- 넷째, 의견과 주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울 수 있다. 사설이나 칼럼보다 논리가 객관적이다.
- 다섯째, 분량의 부담이 적다. 짧은 글이어서 분석과 종합이 용이하다. 사설과 칼럼에 비해 글의 형식과 내용 전개가 단순하다. 따라서 글쓰기를 배우는 데 매우 유익하다. 처음에는 짧은 독자투고를 쓰면서 글의 형식과 내용 전개 방법을 익히고, 차츰 분량을 늘려나가는 게 좋다. 짧은 글이라는 것이 장점인 셈이다.
- 여섯째, 주제가 친숙하다. 사설과 칼럼의 글감은 대체로 정치·경제·사회 문제 등 어려운 것들이다. 반면 독자투고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겪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다룬다.

3) 독자투고의 분석

(예시 1)

독자 편지

단체헌혈 줄어 수술도 못할 판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체 헌혈자가 많이 줄어들어 수술용 혈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헌혈받는 혈액을 통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혈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며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에 헌혈로만 확보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 암을 비롯한 증증 질환자 증가 등 혈액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헌혈 참여자는 줄어 수혈을 필요로 하는 병상의 많은 환자가 애타게 기다린다. 혈액 부족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은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했으면 한다. 또 정부는 헌혈자에게 좀 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남이 부산 금정구 부곡1동

동아일보 2009년 11월 20일 33면

(예시 2)



독자투고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 기초질서

우리는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실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이르렀고 경제성장을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한가.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담배꽂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즐기는 커녕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먹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낌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무질서라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만수(사천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경남신문 2009년 11월 19일 22면

(예시 3)

청소년 정신건강 해치는 음란사이트 단속 강화 시급

며칠 전 중고차를 사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내가 필요로 하는 차량을 찍어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엉뚱하게도 웬 상업광고가 떴다. 화가 나서 그냥 닫아버리려고 하다가 언뜻 보니 놀랍게도 그 사이트는 여성이 직접 착용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성들이 입던 건지, 여성 속옷을 산 뒤 남성들이 입으면서 사람의 체취를 스미게 한 뒤 팔아먹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찾는 변태들이 있다는 게 기막혔다.

또한, 그런걸 아예 구입 해다가 파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몰개성화 하고 성적 취향으로만 돌

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옷을 판다는 걸 내놓고 하기 어려우니까 은근히 유도하는 말로 “여성 속옷 무료합니다”라는 식의 문구로 접속자를 유도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노린增高속속 카페가 모방에 모방을 거듭하면 그런 것을 그냥 웃고 마는 어른들과 달리 청소년들이 가장 걱정된다.

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사이트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학교나 가정의 교육도 있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이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줬으면 한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용동

광주일보 2009년 11월 19일 17면

▶ 예시문 분석

(예시 1)은 ‘단체헌혈 줄어 수술도 못할 판’이라는 제목으로 독자가 쓴 글이다. 독자투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3장이다. 이 글은 2장 정도이며, 피라미드형(미괄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은 육하원칙 가운데 ‘무엇을’ (단체 헌혈)과 ‘어떻게’ (헌혈자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독자투고 유형 중 의견제시형과 캠페인형이 혼합됐다.

첫째 문단에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 둘째 문단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글의 내용 구조는 [문제 제기-의견 개진-대안 제시]로 이뤄졌다.

(예시 2)는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 기초질서’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3장 정도이며, 피라미드형(미괄식)이다. 육하원칙 가운데 ‘무엇을’ (기초질서)과 ‘어떻게’ (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독자투고의 유형 중 주장형이다.

이 글의 경우 첫째 문단은 문제 제기를 위한 도입 단계이고, 둘째 문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셋째 문단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글은 [도입-문제 제기-의견 개진] 구조로 기술됐다.

(예시 3)은 ‘청소년 정신건강 해치는 음란사이트 단속 강화 시급’이라는 독자의 글이다.

이 글은 200자 원고지 3.5장 정도이며, 피라미드형(미팔식)을 취하고 있다. 초점은 육하원칙 중 ‘무엇을’ (음란사이트)과 ‘어떻게’ (계도와 단속)에 두었다. 독자투고의 유형 중 고발형이다.

이 글은 첫째 문단에서 문제 현상을 설명하고, 둘째와 셋째 문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넷째 문단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다. 글의 내용 구조는 [도입-문제 제기-의견 개진]이다.

4) 독자투고를 활용한 기본형 글쓰기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각자 독자투고를 찾아 글쓰기를 해보자.

자전거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해야

최근 전국에 자전거 타기 열풍이 거세다. 건강증진 효과에 친환경적인 참살이 스포츠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확충,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공용제, 자전거 주차장 확대 등 각종 방안들을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선만 그어 놓은 무늬만 자전거 도로 수준인 우리의 현실에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의 급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듯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70~80%는 사고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닌 의무다. 또한 자전거 주행속도는 시속 20km대를 넘지 않는 게 좋으며, 여럿이 주행할 때는 일렬로 주행해야 사고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안전모, 팔·다리 보호대, 라이트, 반사경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구의 착용, 설치도 법으로 규정해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다.

강형석<대전중부경찰서 방법순찰대>

대전일보 2009년 11월 11일 22면

↳ 독자투고의 제목 및 출처

↳ 글의 분석

① 주체는 누구인가?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⑤ 왜 그랬을까?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⑨ 문단별 요점을 짧게 정리하면?(문단은 2~5개로 나눈다.)

⑩ 주제(핵심)를 짧게 쓰면?

● 내가 찾은 독자투고를 분석한 후 기본형 글쓰기

↳ 내가 찾은 보도기사의 제목 및 출처 _____

↳ 글의 분석

① 주체는 누구인가? _____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_____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_____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_____

⑤ 왜 그랬을까? _____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_____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_____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_____

⑨ 문단별 요점을 짧게 정리하면? _____

⑩ 주제(핵심)를 짧게 정리하면?

5) 독자투고를 활용한 심화형 글쓰기

다음 자료를 분석한 후 각자 독자투고를 찾아 글쓰기를 해보자.

독자칼럼

대학생이야말로 주변인

황만규 강원 춘천시 교동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철이다. 해방감에 사로잡힌 고3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실컷 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인데 나는 그들이 무척 안타깝다.

나는 강원도 춘천의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이다. 하지만 불안하다. 뭐가 나를 아니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도 뚜렷하지 못한 미래의 모습이 그것이다. 인턴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도 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없이 막연히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에 모든 대학생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학교 일보에서 학생들의 성

적 짜맞추기가 무척이나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성적이 B만 나와도 재수강 및 성적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학생들의 성적 짜맞추기일까? 왜 B를 A로 올리느냐가 문제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성적의 완벽을 요구하고 사회성의 완벽을 요구한다.

사회성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의 예를 찾아보자. 학생들은 방학을 토익 점수 올리기, 혹은 제2외국어 공부하기에 시간을 보낸다. 이도 모자라 각종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열을 올린다. 왜냐하면 대학생활에서 적절한 사회성이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나도 춘천에서 마임축제 및 레저스포츠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많은 봉사활동으로 춘천시에 이바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봉사를 위해 참여한 것일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대학 가면 놀 수 있다, 대학 가면 연애했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고3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학생들이다.

진정한 주변인은 대학생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성인이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회를 향해 발을 내디뎌 보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한겨레 2009년 11월 19일 25면

- ↳ 독자투고의 제목 및 출처 _____
- ↳ 글의 분석
- ① 주제는 누구인가? _____
 -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_____
 -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_____
 -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_____
 - ⑤ 왜 그랬을까? _____
 -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_____
 -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_____
 -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_____

문단 1: _____

문단 2: _____

문단 3 : _____

문단 4: _____

주제(핵심): _____

[illegible]

● 내가 찾은 독자투고를 분석한 후 심화형 글쓰기

↳ 내가 찾은 보도기사의 제목 및 출처 _____

↳ 글의 분석

① 주체는 누구인가? _____

② 언제 있었던 일인가? _____

③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_____

④ 이 글에서 무엇(문제, 목적, 제안 등)을 말하려고 하는가? _____

⑤ 왜 그랬을까? _____

⑥ 어떻게 했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예상)이 일어날까? _____

⑦ 이 글과 관련된 사람(분야)은? _____

⑧ 이 글의 구성 형식은? _____

⑨ 문단별 요점을 짧게 정리하면? _____

문단 1: _____

문단 2: _____

문단 3: _____

문단 4: _____

주제(핵심): _____

⑩ 선택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투고를 작성해 보자.

07

통계를
활용한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07

통계를 활용한 글쓰기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통계를 활용한 글쓰기를 배울 것이다. 통계는 경험적인 연구나 조사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으로, 수치가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숫자를 사용하여 어떤 주장이나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좋다.

통계를 이용할 경우 어느 것에 관한 숫자를 부각하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주장하는 힘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통계를 과장하거나 평범한 통계를 중요한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에서는 통계 자료를 이해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숫자를 중심으로 정직하게 자료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습 목표

-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글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통계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 통계 선택의 안목을 갖는 방법을 익힌다.
-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를 잘 하는 방법을 배운다.
- 통계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파악한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표를 보고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2) 통계를 활용한 글의 특성

통계를 활용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계 이해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통계를 볼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통계를 제시한 곳의 신뢰성이다. 둘째는 통계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한 것인가이다. 셋째는 통계 자료에서 핵심적으로 살펴야 하고 글의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넷째는 통계를 활용하여 사회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이다.

첫째, 통계의 신뢰성을 살펴보자. 통계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먼저 통계를 조사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청이나 국가 정책 연구기관,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에 비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통계 자료의 신뢰성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조사 방법과 관련이 깊다.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내놓는 통계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한 조사 대상을 정해진 기간 동안 명확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기관의 조사가 아니라면 통계를 제시하기 이전에 ‘조사의 신뢰도나 오차 범위’ 등을 확인해 밝히는 것이 좋다.

둘째, 조사 대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 부른다. 그런데 인구센서스처럼 전체 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밀하게 조사 대상을 추출하여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생의 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국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몇 개 대학만 조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는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구 대상의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등 타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통계 글을 쓸 때는 조사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 대상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즉 통계를 활용해 글을 작성할 경우 조사 대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조사 결과를 설명해야 하며, ‘조사 집단’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앞의 예를 든다면, 조사대상 집단이 ‘우리나라 대학생’인지, ‘수도권 대학생’인지, ‘서울 어느 대학교의 학생’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조사 방법이다.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런 각각의 방법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응답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통계를 활용한 글쓰기에서는 통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셋째, 통계 결과 중 무엇을 핵심으로 삼아 주된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상식적인 결과와 다른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성별, 지역별 등과 같이 집단별 차이 중 부각시킬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장 중요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부각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넷째,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주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통계 수치가 주는 사회적 의미는 관련 이론이나 상식과 연결해 기술하거나 주요 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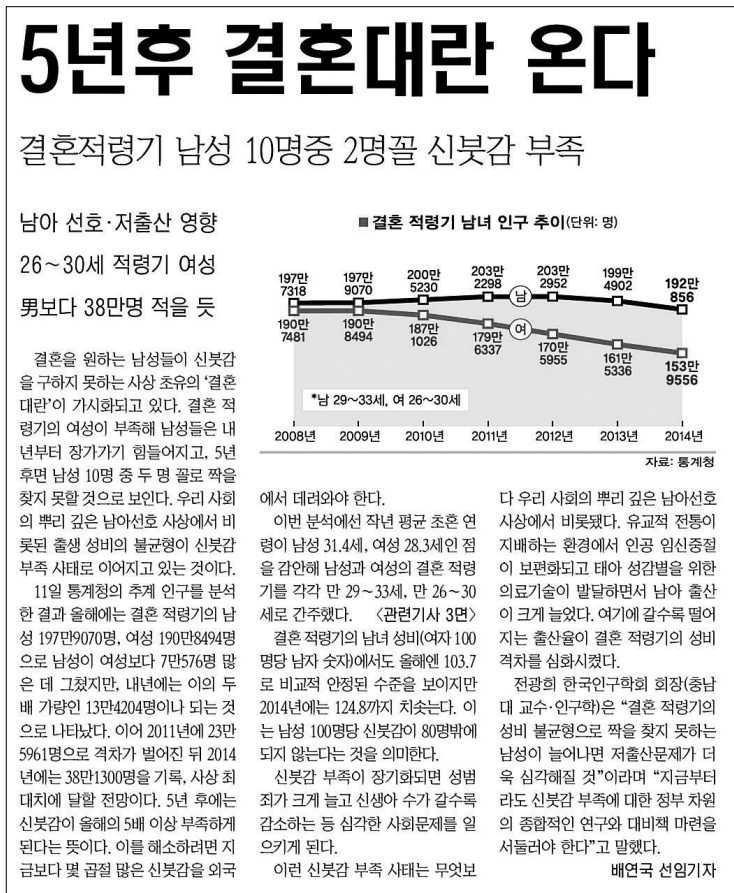
의 의견(또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강조하는 게 좋다.

또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표, 그래프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주요 통계 내용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와 그래프 중 어떤 것이 좋을까?

표는 아주 간결한 것이 아닌 한 대다수의 사람이 보기에 힘들어한다. 따라서 표를 제시할 경우엔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프는 원, 막대, 띠, 꺾은선 그래프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는 원 그래프를 사용하고,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꺾은선 그래프를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집단 간 비교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는 막대그래프나 띠그래프를 많이 이용한다. 자신이 가진 통계의 특징에 맞는 표나 그래프를 선택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표나 그래프를 활용할 경우에도 표나 그래프로 제시한 내용을 글로 설명해야 한다. 대다수가 표나 그래프로 통계 내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글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표나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조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내용은 글로 꼭 기술되어야 한다.

3) 통계를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



세계일보 2009년 10월 12일 1면

제시된 기사는 '5년 후 결혼대란 온다'를 헤드라인으로 하여 출생 성비의 차이로 나타나는 신부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체 7개 문단 중 첫 문단에서 제시한 후 다음 문단부터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서술하는 두괄식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첫 문단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내용이 제시될 것인지를 독자에게 개괄적으로 알려줘 세부적인 궁금증을 갖도록 유도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글을 구성하고 있다.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더해주는 형식으로 글이 구성된 셈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한 두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구조를 갖는다. 즉 [통계적인 상세한 분석 제시 + 분석에서의 유의점이나 특성 + 통계에서 드러난 사회적 현상의 의미 + 통계에서 드러난 사회적 현상의 다른 파급 효과 혹은 영향 분석 + 통계에서 드러난 사회적 현상의 원인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대책 혹은 대안 제시]의 형태이다.

그리고 이 기사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독자에게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그래프는 둘째 문단에서 통계 숫자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꺾은선 그래프가 이용되었다. 이 그래프는 결혼 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인구 구성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의 현격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꺾은선 그래프 사용은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다섯째 문단에서 '통계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나 영향'을 서술하면서 '성범죄 발생 증가와 신생아 수의 감소'라는 면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그 영향력을 너무 단순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좋은 통계 자료를 선택하여 현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 문제를 살피고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며 통계에 적합한 그래프를 활용하는 등 통계를 활용한 글쓰기의 좋은 예이다.

4) 기본형 글쓰기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자료를 더 찾아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를 해보자.

조사 방법 : 2007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관을 조사하여 국제 비교한 연구이다. 직업 위세 연구는 이 중 한 부분이다. 직업 위세 조사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네 나라의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약사, 중·고교 교사, 중소기업 간부, 기계공학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은행 사무직원,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 일용 근로자’라는 10개 직업을 제시하고 각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묻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각 직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세를 갖는지 비교한 것이다.

직업 위세(occupational prestige) :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어느 직업에 대한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 등을 반영하여 행한 사회적 평가로, 각 직업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직업 존경도와 약간 다른 개념이다.

〈자료〉 국가별 직업위세 순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국회의원	1	1	5	4
약사	2	2	3	2
중고 교사	3	5	5	7
중소기업 간부	5	6	4	3
기계공학 엔지니어	7	4	2	5
소프트웨어 개발자	4	3	1	1
은행 사무직원	6	7	7	6
공장 근로자	8	8	9	9
음식점 종업원	9	9	10	8
건설일용 근로자	10	10	8	10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내가 더 찾은 관련 자료

● 아우트라인 만들기

● 통계를 이용한 실제 글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gray area.

5) 심화형 글쓰기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자료를 더 찾아 통계를 이용한 글쓰기를 해보자.

조사 방법 : 인구 변화 추이는 통계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해 밝혀내는 것으로, 현재의 인구 변화에 비추어 미래의 인구 변화 추이까지 고려하게 된다.

중위연령 : 한 국가의 인구를 나이순으로 한 줄로 세울 때 줄 가운데에 위치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2005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30대였지만, 20년 후인 2025년에는 40대가 중위연령이 된다.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때문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에 따른 사회 구분 : 전체 인구 구성비 중 노년 인구가 7.0%를 넘는 경우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자료 1〉 고령 인구 성장도 빨리 빨리

국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
프랑스	1864년	1979년	2020년
미국	1942년	2015년	2036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자료 2〉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구 변화 추이 지표

연도	인구 성장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중위연령 전체(세)	평균연령 전체(세)
2000	0.84	29.4	10.1	31.8	33.1
2005	0.21	26.8	12.6	34.8	35.5
2010	0.26	22.2	15.0	38.0	38.0
2015	0.10	18.6	17.6	41.0	40.4
2020	-0.02	17.2	21.7	43.8	42.7
2025	-0.12	17.2	29.1	46.4	44.8
2030	-0.25	17.7	37.7	49.0	46.7

※자료:통계청

● 내가 더 찾은 관련 자료

● 아웃라인 만들기

● 통계를 이용한 실제 글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gray area,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practice.

08

홍보 및
광고 글쓰기

대 글 가 학 쓰 이 생 기 드

1) 개요

▶ 학습 개요

이 장에서는 광고나 홍보를 위한 글쓰기를 익힐 것이다. 광고나 홍보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이나 사람의 매력을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홍보나 광고 글쓰기는 홍보·광고 대상의 매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종종 광고나 홍보의 글쓰기에서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대포장하거나 단점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홍보와 광고 글쓰기에서는 언급 대상의 긍정적인 점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 학습 목표

- 광고나 홍보를 위한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한다.
- 광고나 홍보를 위한 글쓰기 방법을 익힌다.
- 광고나 홍보를 위한 글쓰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파악한다.

▶ 나의 상황 확인하기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광고나 홍보 글을 보면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홍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5개 정도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2) 글의 특성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광고나 홍보이다. 과거에 비해 인간관계도 확장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이것저것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홍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가 형성되면 그 내용이 다시 광고나 홍보 또는 입소문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다. 홍보나 광고는 정보의 생명력에 영향을 미쳐 그 정보를 생존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한다. 결국 홍보나 광고가 사람이나 상품의 존재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대상이 생명력을 갖도록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글은 어떻게 기술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글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는 설명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홍보나 광고를 위한 글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서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야 할 대상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모두 글로 표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홍보나 광고를 하는 글은 읽는 사람과 광고·홍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영화를 홍보하는 글이라면 영화의 주제와 줄거리, 감독과 주인공, 감상 포인트 등을 기술하면 된다. 이처럼 알리고자 하는 대상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글감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서술해야 한다. 광고나 홍보라고 하면 ‘과대포장’이라는 말이 연상되곤 한다. 내용을 부풀린 광고나 홍보가 종종 눈에 띄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나 홍보 목적이라 해도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과대포장해서 서술해서는 안 된다.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의 단점을 일정 부분 알려주는 것이 좋은 홍보가 될 경우도 있다. 단점을 알릴 때는 단순히 단점만으로 표현하면 광고나 홍보의 의미가 없으므로 장점을 알린 후 “이런 부분은 향후 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단점을 밝히거나, 단점을 알린 후 장점을 말하면서 “이런 장점들은 앞서의 단점을 모두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광고나 홍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정보를 주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셋째, 진부한 표현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나 홍보물을 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홍보 문구를 서술한다. 예전 한 휴대폰 광고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휴대폰 예절을 강조했던 것처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창조적인 언어 구사는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홍보에서는 장점이나 단점을 표현하는 독특한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광고나 홍보를 하는 글은 읽기 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읽기 편한 글은 중학생이 이해하는 수준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광고나 홍보 글쓰기에서도 독자를 중학생 수준으로 가정하고 자신이 알리고 싶은 정보를 담아 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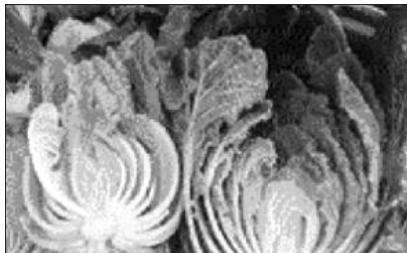
다섯째, 광고나 홍보 대상의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야 한다면 그림은 왼쪽에 배치하고, 글은 오른쪽에 서술하는 것이 좋다. 인간의 시각과 관련한 사고기능에서 좌측의 대상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을, 우측의 대상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해준다고 한다. 따라서 홍보 대상의 사진 등은 왼쪽에, 설명 글은 오른쪽에 배치해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광고성이나 홍보성 글을 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까? 제일 먼저 홍보나 광고해야 하는 대상을 정한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매우 잘 알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대상을 정하고 난 후에는 그 대상의 장점, 단점 등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잘 표현하고 특징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정한다. 가능하면 각 특징에 맞는 인지적인 표현과 감성적인 표현을 고루 파악해 보도록 한다. 사진 자료는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른다. 이후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글쓰기를 하면 된다.

3) 홍보나 광고를 위한 글쓰기

[음식이야기]약초로 이용했던 배추

쌀밥과 함께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김치다. 요즘은 김치를 사먹는 집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김장은 겨울나기를 위한 필수 행사다. 배추는 11월 하순부터 2월까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서리가 내리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맛을 더한다. 잎의 당분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배추가 등장한 때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식용으로 본격 재배한 시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다. 초기에는 채소가 아닌 약초로 배추가 이용해 민간에서 생활상비약으로 활용됐다. 배추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칼로리가 낮아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으로 잘 나타나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배추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함유해 감기에 좋고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다.

변비·대장암 예방 효과...비타민 식이섬유 풍부한 '영양 덩어리'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없는 영양 덩어리=배추는 90~95% 정도가 수분이다. 하지만 나머지 5%에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풍부한 비타민C는 비갈쪽 껍질부분에 가장 많고, 뿌리에 가까운 잎 쪽에도 많이 들어있다. 김치 담글 때에도 거의 손실되지 않는다. 비타민C는 감기예방에도 좋다. 데친 배추는 인체의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해 감기로 인한 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잎을 약간 말려 뜨거운 물을 붓고 사흘쯤 뒀다 마시면 기침과 가래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는 변비 개선에 좋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은 배춧국을 끓였을 때 구수한 맛을 내준다. 배추에 녹아있는 칼륨은 이뇨작용과 지나치게 섭취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소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절임 식품은 고혈압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배추절임은 배추에 포함된 칼륨이 나트륨을 배설해 염분을 과잉으로 섭취할 위험을 줄여준다. 또 당질이 적고 칼로리가 100g당(중간크기 잎 1장) 12칼로리 정도로 비만이나 고혈압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를 돕는다.

뿌리도 버릴 게 없다.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흑설탕과 생강을 함께 넣고 푹 끓여 물 대신 마시면 몸이 춥거나 열이 날 때 좋다. 비타민 A는 흰 부분에는 없고 푸른 부분에 많다.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좋은 배추는 손으로 들었을 때 중량감이 있어야 한다. 잎이 연녹색으로 단단하게 말려 있는 것이 싱싱하다. 흰 부분은 수분이 충분해야 한다. 잘랐을 때 잎과 잎 사이가 겹쳐져 있고 단면이 편편한 것을 고른다. 자른 후에도 중심 부근은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것은 심이 부풀어 있다. 자를 때는 뿌리 쪽에서 칼을 넣어 잎 쪽으로 자르면 흐트러지지 않는다. 김치의 주재료지만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섬유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어떤 요리에도 어울린다. 생으로는 신선한 맛을 내며 요리하면 단맛이 풍부해진다. 일본의 대표음식인 샤브샤브나 스키야키에 빠지지 않는 배추는 시원한 맛을 낸다. 비타민C나 칼륨 등 영양소는 물에 녹기 쉬워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찜, 찌개, 국, 전 등으로 요리한다.

부드러운 섬유질은 가열하면 부피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식물성 섬유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데칠 때 영양소와 구수한 맛을 잃지 않으려면 잘게 자르지 않는다. 볶을 때는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센 불에 한번만 조리한다. 노란 속은 찜장에 찍어 생으로 먹고, 겉잎은 말려 새끼기로 활용하면 감칠맛이 좋아져 국거리로 그만이다.

4~10월경에 나오는 배추는 손상되기 쉬운 품종이어서 잘라서 필요한 양만큼 나누면 4, 5일간 보관할 수 있다. 요즘 나오는 배추는 시원한 그늘에 뿌리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 세워두면 2, 3주간은 보존할 수 있다. 손질하지 않은 배추를 통째로 신문지에 여러 겹 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 보관한다. 눅혀서 보관하면 무게에 눌러 멍이 들거나 썩을 수 있으므로 밑동을 아래로 해서 세워두는 것이 좋다.

▶ 예시문 분석

이 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 중 하나인 배추에 관한 글이다. 처음 문단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추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김장과 연관시켜 이야기한 후 배추의 장점과 역사, 약리적 효과 등을 언급하면서 배추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식이야기]의 꼭지로 진행되는 글이어선지 이어지는 글에서는 배추가 갖는 다양한 영양분과 요리법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서술 과정에서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없는 영양 덩어리’,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이라는 소재목을 달면서 배추는 영양과 요리 측면 모두에서 장점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양 덩어리’, ‘팔방미인’이라는 표현은 배추의 진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없는 영양 덩어리’라는 소재목 하에서는 [배추에 들어 있는 영양소 + 약리적 작용 + 약용으로서의 사용 방법] 순으로 서술하면서 매우 차분하게 하나하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이라는 소재목 하에서는 [좋은 배추를 고르는 법 + 다듬는 법 + 요리에 사용하는 법 + 보관하는 법] 등 배추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배추의 장점을 약리와 요리의 두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배추를 이용해 요리하고 저장하는 법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차게 담아내고 있다. 아쉬운 점은 배추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의 문제점, 하루 적정 섭취량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나 겨울철에 해먹을 수 있는 배추를 이용한 독특한 요리법 등 일상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 배추의 다양한 점을 설명하는 좋은 글이다.

4) 기본형 글쓰기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자료를 더 찾아 '김연아 홍보' 글쓰기를 해보자.

김연아-아사다 마오와의 맞대결 전적(김연아, 11전 6승 5패)

- ▲2004~2005 시즌 세계주니어선수권-아사다 마오 승(아사다 1위, 김연아 2위) / 주니어그랑프리파이널-아사다 마오 승(아사다 1위, 김연아 2위)
- ▲2005~2006 시즌 주니어세계선수권-김연아 승(김연아 1위, 아사다 2위)
- ▲2006~2007 시즌 세계선수권-아사다 마오 승(아사다 2위, 김연아 3위)) / 그랑프리파이널-김연아 승(김연아 1위, 아사다 2위)
- ▲2007~2008 시즌 세계선수권-아사다 마오 승(아사다 1위, 김연아 3위)) / 그랑프리파이널-김연아 승(김연아 1위, 아사다 2위)
- ▲2008~2009 시즌 그랑프리파이널-아사다 마오 승(아사다 1위, 김연아 2위)) / 4대륙선수권-김연아 승(김연아 1위, 아사다 3위) / 세계선수권-김연아 승(김연아 1위, 아사다 4위)
- ▲2009~2010 시즌 그랑프리시리즈 1차 대회-김연아 승(김연아 1위, 아사다 2위)

● 내가 더 찾은 관련 자료

김연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인지적 언어	김연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감성적 언어

● 아우트라인 만들기

● 실제 김연아를 홍보하는 글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promotional text about Kim Yuna.

5) 심화형 글쓰기

나의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용 개인 홍보' 글쓰기를 해보자.

● 나에 대한 기본적 소개

장점 :

단점 :

장래 가능성 :

현재 나의 스펙 :

주변 사람의 의견 :

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인지적 언어	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감성적 언어

● 아우트라인 만들기

● 실제 나를 홍보하는 글쓰기

A large gray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gray area,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practice.

readers are Leaders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www.presskorea.or.kr